

2023학년도 2학기

상명 엑스퍼트 공모전

Part 1. 내가 수강한 우수강의 공모전

Part 2. 나만의 학습전략 사례 공모전

 SANGMYUNG

교수학습개발센터

Contents

Part 1. 내가 수강한 우수강의 공모전

- | | | |
|----|---------------------------------|-----------------------|
| 01 | 최우수상_실험조리, 내가 수강한 우수강의 | 식품영양학전공 20학번 김경현 1 |
| 02 | 우수상_나를 알고 너를 이해하는 법 | 교육학과 20학번 김수현 5 |
| 03 | 우수상_다시 한번 나를 문학의 세계로 이끌어준 강의 | 게임전공 20학번 손경은 10 |
| 04 | 장려상_'세글세', 세상을 읽을 수 있었던 글쓰기 세미나 | 경영학부 21학번 홍재영 17 |
| 05 | 장려상_세상을 바라보는 해상도를 높이다 | 문헌정보학전공 21학번 김희원 23 |
| 06 | 장려상_고전문학 대체 왜 배워야 해? | 국어교육과 20학번 이가연 29 |

Contents

Part 2. 나만의 학습전략 사례 공모전

01

최우수상_연구하는 대학생이 되는법

생명공학전공 21학번 김건환 | 37

02

우수상_2023 스터디상생플러스 - SQL 개발자 자격증 취득기

지능데이터융합학부 22학번 신지우 | 44

03

우수상_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효과적인 학습전략

국어교육과 21학번 선다현 | 53

04

우수상_챗지피티 영어 선생님

컴퓨터과학과 21학번 이다원 | 60

05

장려상_상명튜터링 200퍼센트 활용하기

경영학부 21학번 홍재영 | 69

실험조리, 내가 수강한 우수강의

식품영양학전공 20학번 **김경현**

기획 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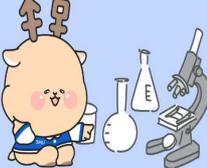
식품영양학전공의 전공선택과목인 실험조리는 식품 조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하는 강의입니다. 실제 실험을 통해 이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특히 산업체를 직접 견학하거나, 팀 프로젝트를 통해 원하는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강의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강의를 일반적인 강의에 비해 평가 항목이 다양하고 활동이 많으며, 수업 방식이 독특한 편이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선뜻 수강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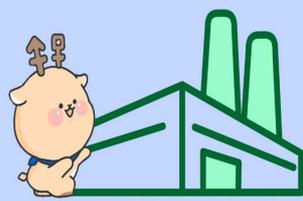
이 좋은 강의를 수강하는데 다른 학생들이 주저하지 않도록 수업 내용과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장점을 소개하고자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 본 동영상은 아래 장면이 주요 편집본이며, 원본은 교수학습개발센터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p style="text-align: right;">삼명 맥스퍼트 실험조리를 소개합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p>실험조리</p> </div> <p style="text-align: center;">[실험조리]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p> <p style="text-align: left;"><small>삼명대학교</small></p>	<p style="text-align: right;">삼명 맥스퍼트 실험조리를 소개합니다</p> <p>강의 내용 개요</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 style="text-align: center;">실험조리는 식품에 대한 전공 지식을 토대로</p> <p style="text-align: left;"><small>삼명대학교</small></p>
<p>강의 내용 개요</p> <p style="text-align: right;">삼명 맥스퍼트 실험조리를 소개합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 style="text-align: center;">예를 들면, 다양한 종류의 응고제를 사용한 두부의 특성을 비교하는 실험.</p> <p style="text-align: left;"><small>삼명대학교</small></p>	<p>강의 내용 개요</p> <p style="text-align: right;">삼명 맥스퍼트 실험조리를 소개합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 style="text-align: center;">커피 원두의 종류, 로스팅 조건에 따른 특성을 비교하는 실험 등</p> <p style="text-align: left;"><small>삼명대학교</small></p>
<p>선수과목</p> <p style="text-align: right;">삼명 맥스퍼트 실험조리를 소개합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 style="text-align: center;">높은 수준의 배경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아</p> <p style="text-align: left;"><small>삼명대학교</small></p>	<p>선수과목</p> <p style="text-align: right;">삼명 맥스퍼트 실험조리를 소개합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 style="text-align: center;">식품에 대한 관심, 그리고 기초적인 지식만 있다면</p> <p style="text-align: left;"><small>삼명대학교</small></p>
<p>수업 개요</p> <p style="text-align: right;">삼명 맥스퍼트 실험조리를 소개합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 style="text-align: center;">실험조리는 약 30분 가량의 온라인 녹화강의를 먼저 수강해</p> <p style="text-align: left;"><small>삼명대학교</small></p>	<p>수업 개요</p> <p style="text-align: right;">삼명 맥스퍼트 실험조리를 소개합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 style="text-align: center;">오프라인 강의에서는 바로 실험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p> <p style="text-align: left;"><small>삼명대학교</small></p>

실험조리를 추천하는 이유 상명 맥스퍼트
실험조리를 소개합니다



첫째로 산학 협력 업체, 식품 관련 기업을 견학합니다

상명대학교

실험조리를 추천하는 이유 상명 맥스퍼트
실험조리를 소개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베지밀 두유를 생산하는 정식품 제조 공장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상명대학교

실험조리를 추천하는 이유 상명 맥스퍼트
실험조리를 소개합니다



정식품의 설립 일화, 제품군별 특화 요소 등의 내용을 들을 수 있었고

상명대학교

실험조리를 추천하는 이유 상명 맥스퍼트
실험조리를 소개합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상명대학교
SANGMYUNG UNIVERSITY

[산학협력 사회맞춤형 교육 시스템 고도화 프로그램] 대상 강의로,

상명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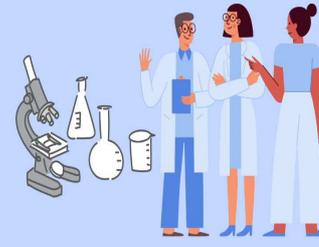
실험조리를 추천하는 이유 상명 맥스퍼트
실험조리를 소개합니다



조별로 최대 1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상명대학교

실험조리를 추천하는 이유 상명 맥스퍼트
실험조리를 소개합니다



평소 해보고 싶었던 실험을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상명대학교

팀 프로젝트에 대해 상명 맥스퍼트
실험조리를 소개합니다



저희 조에서 실험했던 내용들을 살짝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상명대학교

팀 프로젝트에 대해 상명 맥스퍼트
실험조리를 소개합니다



저희 조는 구움과자를 제조할 때 설탕과 유지가 품질 특성에

상명대학교

팀 프로젝트에 대해

상임액스퍼트
실용조리를 소개합니다



과자를 제조할 때 설탕 양이 줄거나 늘면 어떻게 될까?

팀 프로젝트에 대해

상임액스퍼트
실용조리를 소개합니다

	A	B	C
밀가루	30	30	30
버터	30	30	30
계란	30	30	30
설탕	15	30	45
베이킹파우더	1	1	1

설탕량을 각각 50%, 100%, 150%로 하여

3가지 마들렌을 제조하는 실험이었습니다.

팀 프로젝트에 대해

상임액스퍼트
실용조리를 소개합니다



승우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통해 좋은 경험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평가 항목

상임액스퍼트
실용조리를 소개합니다

항목	비율	비고
중간 (시험)	30	
기말 (시험 없음)		
실용수업 참여도(조교 부여)	10	실험 참여도, 실용수행도, 복장, 출결 등 평가
실험보고서	35	수업 보고서 (개별작성) (총 7회 실험, 보고서 7개+5점)
기업탐방 참여 및 보고서 작성	5	
프로젝트 (조별점수)	20	주제선정, 실험준비(재료구입), 수업준비, 수업진행방식, 합동심 (5항목*각 4점) 교수평가 60%, 조교평가 20%, 동료평가 20% (합산)
합계	100	

실험조리의 평가 항목은 다섯 가지입니다

상임액스퍼트
실용조리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실험조리 강의에 대한 소개를 마쳤습니다

상임액스퍼트
실용조리를 소개합니다



승우 여러분의 앞으로의 대학생활을 응원합니다

나를 알고 너를 이해하는 법

교육학과 20학번 김수현

강의 소개

2023학년도 2학기에 수강한 장석진 교수님의 <상담심리학> 강의를 우수강의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 강의는 내담자의 성장과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상담자가 갖춰야 할 전문적, 실천적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강의를 통해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상담의 주요 이론적 접근과 상담 기법을 습득함으로써, 개인적 성장과 타인을 조력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본 강의의 중간고사는 실습 경험을 쌓기 위해 3회기 이상의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 이론을 활용하여 상담 사례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됩니다. 기말고사는 상담 이론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 학기 중 학습한 모든 내용을 범위로 하여 서술형 지필고사를 실시합니다. 이 외에도 토론, 자기분석 보고서, 사례 개념화, 모의 상담 시연, 상담 사례 보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상담 이론과 실습 경험이 적절히 융합된 형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추천 이유

<상담심리학>을 추천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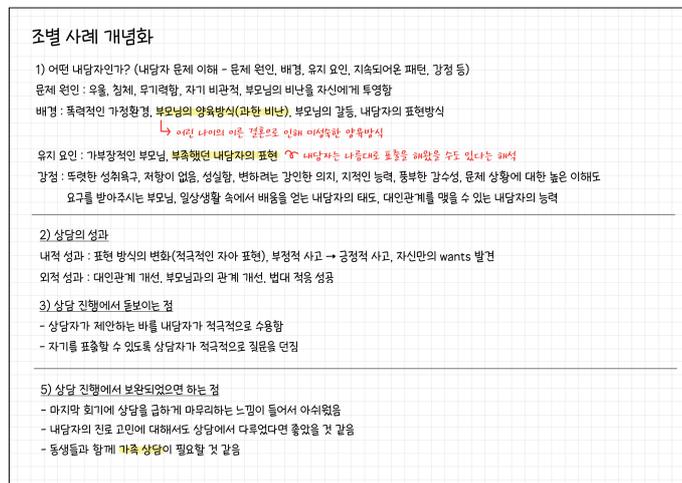
첫째,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나의 주장을 펼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는 상담자가 어떤 이론을 활용하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자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어떤 상담 기법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상담 방향이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의 사례에 대해 동료 상담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

는 것은 상담자에게 새로운 배움이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본 강의를 수강하며, 13주 차에 마련되어 있는 사례 개념화 활동을 통해 상담사례를 분석하고, 분석한 내용을 학우들과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상담사례지만, 상담자에 따라 해석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학우들의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저의 주장을 펼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사례 개념화 활동 시간에 학우들과 논의한 바를 필기 및 정리한 내용입니다.

교수님께서서는 강의 첫 시간부터 수업을 수강하게 된 이유와 자신의 상담 경험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해주셨습니다. 또한, 강의 시간마다 학우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습니다. <상담심리학>을 수강한다면, 활발한 상호작용이 오가는 수업 분위기 속에서 학우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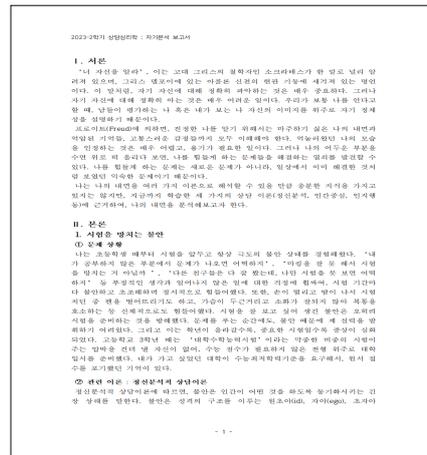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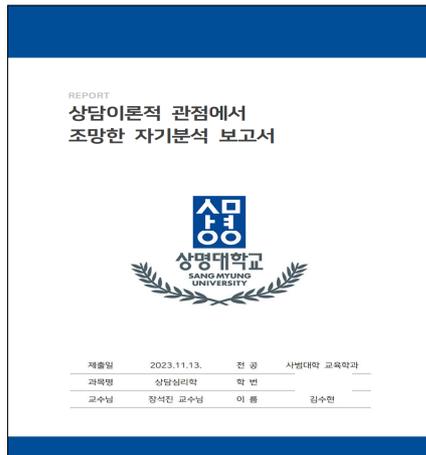
▲ [사진 1] 사례 개념화 활동 자료

둘째, ‘나’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상담의 본질은 자신을 이해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담의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담자 먼저 진정한 자신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수님께서 강의 첫 시간에 ‘자기분석 보고서’라는 과제를 제시해 주십니다. 이는 상담 이론적 관점에서 자기 내면을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제입니다. 저도 처음 과제를 접했을 때, ‘상담은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강의를 들으며 상담 이론을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자기분석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해당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상담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토대로 상담자가 자신을 이해해야, 타인을 돕고 이해할 수 있는 진정한 상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기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며, 일상에서 나를 힘들게 하던 심리적 문제를 상담 이론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탐구하며 ‘나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상담심리학> 수업을 통해 내담자를 이해하는 방법을 주로 배우지만, 동시에 나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에 더욱 의미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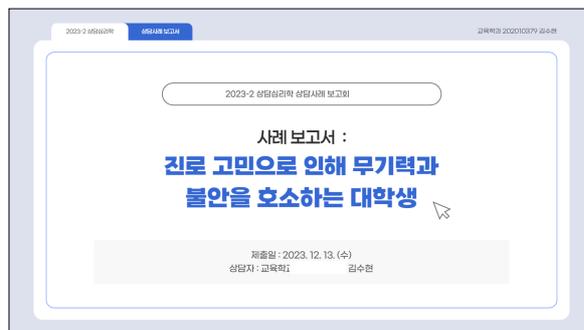
▲ [사진 2] 필자가 작성한 자기분석 보고서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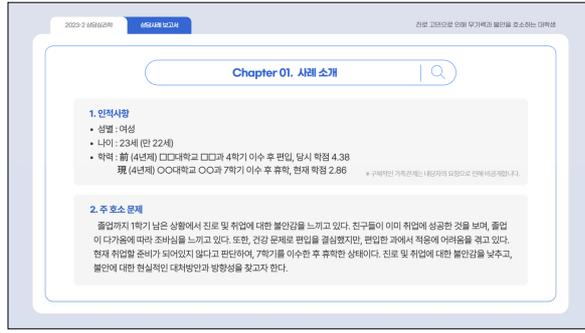
셋째, 이론과 실습을 접목해, 상담자로서의 실질적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상담자가 갖춰야 할 전문적 자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상담 이론에 관한 이해, 상담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이해,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실제 상담을 경험하는 실습 훈련입니다. 상담 이론과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이론적 학습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상담에 관한 이론적 지식을 실제 상담 상황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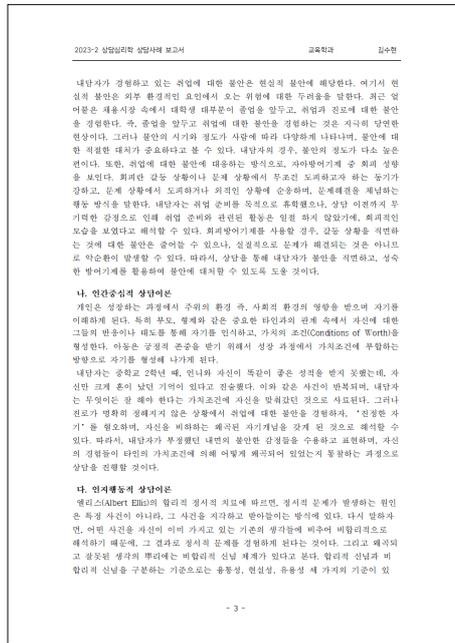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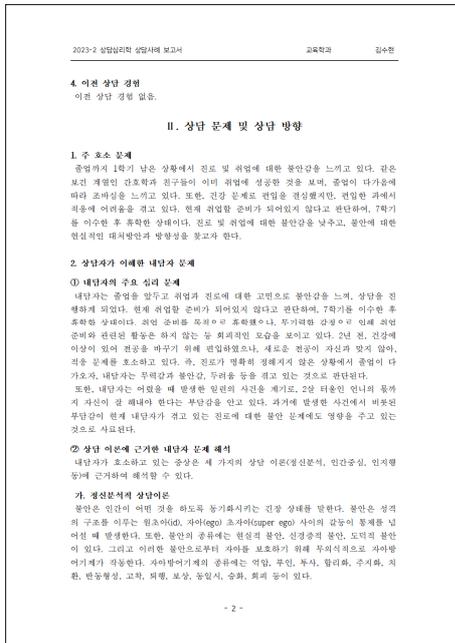
본 강의는 상담에 관한 이론적 학습에서 그치지 않고, 모의 상담 시연과 실제 상담 실습으로 상담자로서의 실질적인 전문성을 기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의 상담 시연은 상담자, 내담자, 관찰자로 역할을 나눠, 즉석에서 상담 시연을 진행하는 활동입니다. 내담자 역할은 상담에 임하는 내담자의 심리를 경험해 볼 수 있고, 상담자 역할은 실제 상담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관찰자 역할은 제삼자의 입장에서 상담이 진행되는 흐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담 실습은 개인이 내담자를 섭외하여 3회기 이상의 상담을 시행하고, 해당 사례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입니다. 각 학우는 상담에 관한 이론적 지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후, 상담 사례 보고회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며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 교수님의 supervision을 받습니다. 교수님은 상담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조언을 해주시기 때문에, 상담자로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 [사진 3] 필자가 제작한 상담사례 보고회 발표 자료의 일부



▲ [사진 4] 필자가 작성한 상담사례 보고서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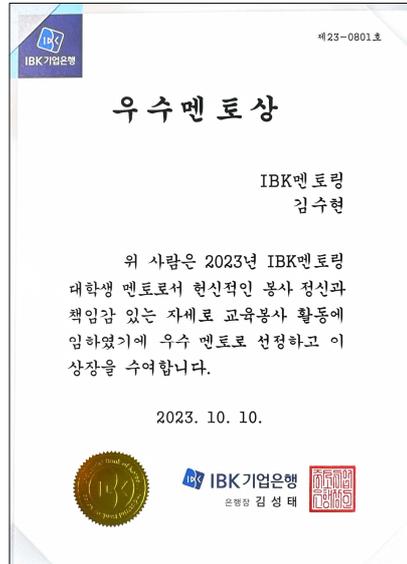
강의에 대한 소감 및 성과

저는 <상담심리학>에서 학습한 내용을 일상생활과 연관 지어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온 사례를 참고하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는 내용은 저서를 찾아보며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A+라는 우수한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학기별 성적 상세						
No	학수번호	교과목명	이수구분	학점	평점	등급
1	HALF9376		교선	3		
2	HAAE5005		2전선	3		
3	HABE9219	상담심리학	1전심	3	13.50	A+
4	HATTO104		1교직	2		

▲ [사진 5] 2023년도 2학기 상담심리학 성적

또한, <상담심리학>을 수강했던 2023년 2학기에는 IBK 기업은행에서 실시하는 학습 및 정서 멘토링에 참여하여, 우수 멘토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멘토링을 진행하는 동안 상담심리학에서 학습한 상담 기법을 토대로, 멘티의 이야기에 공감적 경청을 하며 진심으로 다가가는 소통을 실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진 6] 멘토링 대외활동 상장

많은 분들이 <상담심리학>이라고 하면 ‘심리상담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듣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본 강의는 상담자로서의 역량을 기르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찰 능력, 지각 능력, 감수성, 문제해결력 등 상담자가 갖춰야 할 역량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상담 기법의 하나인 공감적 경청은 사람들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기술입니다. 공감적 경청은 과제를 함께 수행하는 팀원들과 소통할 때, 가족들과 대화할 때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담심리학>은 상담자가 되고자 하는 학우뿐만 아니라 모든 상명대학교 학우에게 유용한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은 학문이 아니고 삶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유능한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담과 관련된 학문적 지식을 쌓고 기법을 익히는 등 많은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상담에 임할 때는 학문이 아니라, 습득한 학문을 자기 삶에 녹여서 내담자의 삶과 마주해야 진정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 삶과 밀접해 있는 ‘상담’을 배워보고 싶은 학우들에게 <상담심리학>을 추천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문학의 세계로 이끌어 준 강의

게임전공 20학번 **손경은**

제가 소개하고 싶은 우수강의는 강옥희 교수님의 ‘명저 읽기(문학)’입니다.

수강을 다짐한 이유

저는 중학생 때부터 글을 쓰거나 시를 짓는 것에 흥미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학교 백일장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으며 강릉시에서 개최한 백일장에도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쓴 글이 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에 행복을 느껴 나름대로 열심히 글을 쓰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무언가 결핍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바로 표현력의 한계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단어나 문장으로 얇게 쌓아 올린 제 표현력은 특색이 없었고, 견고하지도 않았습니다. 독서를 통해 생각에 깊이를 더해보자, 다짐했지만 이를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을뿐더러, 고민 끝에 겨우 선택한 책은 조금만 읽어도 쉽게 지루해졌습니다. 책을 멀리하면 할수록 한계점은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슬럼프에 빠지게 된 저는 결국 글쓰기라는 취미를 접고, 이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친구들과 교양강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명저 읽기’라는 강의를 알게 되었습니다. 흥미가 생긴 저는 급하게 에브리타임을 열어 명저 읽기에 대한 수강평을 찾아보았습니다. 명저 읽기의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네 권의 책을 읽어야 하며 이에 대한 네 개의 독후감 또한 작성해야 하는 일명 헬강의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독서를 꺼리던 내가 과연 네 권의 책을 읽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성적이 걸려있기 때문에 결국 반강제적으로 책을 읽게 될 것이라는 친구의 격려 아닌 격려 덕에 마음을 굳힐 수 있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네 권의 책을 읽으며 독서에 대한 흥미를 붙이고, 이를 습관화하자. 독서를 통해 사고력과 표현력을 길러 다시 한번 좋은 글을 써보자.’ 제가 이 과목을 수강하기 전에 세운 목표였습니다. 결국, 목표가 향하는 모든 종착지는 글쓰기였습니다. 글에 대한 열정이 식은 줄로만 알았는데,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글에 대한 열망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저는 망설임 없이 ‘명저 읽기(문학)’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강의소개

강옥희 교수님의 ‘명저 읽기(문학)’은 교양 선택과목이며, 3학점입니다.

1. 학습 목표

“<명저 읽기(문학)> 강좌에서는 고전의 정전으로 알려진 세계의 문학작품을 읽음으로써 자신을 성찰한다. 세상을 보는 관점과 인식을 살피고, 다채로운 인간 삶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기른다.”

강의 계획서에서 발췌한 교과목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명저 읽기(문학)’는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동서양의 대표적인 고전문학 작품을 읽는 강의이며, 작품 속에 나타난 인간 사회의 모습을 통해 스스로를 성찰하고 사고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강의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진행 방식

‘명저 읽기(문학)’는 한 학기 동안 총 네 권의 고전문학을 다루며, 네 권의 책은 학생들의 피드백에 따라 매 학기 유동적으로 변경됩니다. 제가 23년 2학기에 수강한 ‘명저 읽기(문학)’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 카뮈의 <이방인>,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총 네 권의 고전을 다뤘습니다. ‘명저 읽기(문학)’는 퀴즈와 강의,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주어진 책을 읽지 않으면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기에 반드시 책을 읽어야 합니다.

1) 퀴즈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E-Campus를 통해 퀴즈를 봅니다. 간단한 객관식 문제뿐만 아니라, 생각을 요하는 서술형 문제도 출제됩니다. 책을 꼼꼼하게 읽었다면 풀 수 있는 난이도의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또, 전자기기가 없는 학생을 대비해 교수님께서 직접 A4용지에 퀴즈 내용을 인쇄해 오십니다.

2) 강의

교수님께서 PPT 자료를 통해 작가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 등장인물의 성격 등을 설명해 주십니

다. 강의를 통해 작가의 삶을 들여다보며 작가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가 왜 이런 소설을 썼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책이 쓰인 시대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어, 혼자 읽을 땐 생소하게 느껴진 묘사나 풍자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를 통해 혼자 책을 읽을 땐 모호하게 느껴졌던 부분을 짚고 넘어갈 수 있어 책에 대한 이해도와 흥미가 높아졌습니다.

카프카 문학의 특징

기원하는 - 광란한 디펜
되찾음 - 비영성

개명당량은 '허' > 소원
있음/없음

새로운, 동력에 따라 증가/감하는
생각을 내려놓음. → 새로운 사회적
가치 정립함.

카프카의 특징

- 루카치 - 모더니즘 문학의 특징 불안
- 대표적인 작가 프란츠 카프카
- 경제적 가치가 중요한 척도가 되는 자본주의 사회의 불안을 보여주는 작품
- 주체의 죽음, 자기기만, 이방인, 경계인, 타자, 가족의 해체, 노동, 소외, 사물화, 현대사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을 보여줌.
- 불안, 죽음과 같은 문제의 중요성이 작품 곳곳에서 드러남

용인 real-life의 비영 → 현실정신사 반영?
△ 태연한 내성 반영한 존재?
의 현실은 대체해?
영향 불안정성이
현대문학의 반영

카프카의 특징

① 전형적인 인물	모더니즘
② 현실물사	① 극단
③ 진미의 있음	② 유산의
	③ 낭만

카프카의 <변신>의 수업자료로 사용된 PPT이며, 태블릿을 사용해 필기하였습니다. 모더니즘의 특징을 갖는 카프카의 문학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모더니즘과 반대되는 리얼리즘이라는 개념,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특징, 모더니즘의 발현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3) 토론

퀴즈와 강의를 통해 작품에 대한 학생들의 전반적인 이해가 이루어지면, 조를 이루어 해당 책에 관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토론의 주제는 자유이기 때문에 조원 각자가 가진 다양한 생각을 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나와는 다른 관점을 가진 조원, 생각지도 못한 주제를 꺼내는 조원과의 이야기를 통해 관점의 다각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책을 읽고, 강의와 퀴즈를 진행해 책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토론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소통이 가능해 좋았습니다.

Q. 책 내용이 '변신'인 것

- 둘이 비유하여 변신.
- 나 > 변신'이라 하면 좀 모호하게 느껴 지는데.

하나는 인물이 개처럼 수동적인 역할로 하다가 - 동물성이 강한 사회적으로 성장했어.

• 농담 → 상징
사회적 변화, 사람들도 함께 변화해버린다./ 일종의 전이?
시계초기 갑자야한 부분에서

Q. 이쪽은 언뜻부터 차별은 불가피하지?

사실에는 감각 자체가 내 성격이다. 근대사회의
다섯 번의 커다란 열매. 각이로 기쁘게 커다란 다락.
시회. 동계초기. 각이로 상하 → 재민각상 → 열매의 → 농담.
이런 열매. 화살의 → 화살이 될 수 있다
이것 저것 특별하는 것은
경이

① 사하의 중요, 관계를 벗어남은 인물 /
② 내성적, 불안정 / 극단적인 행동들은 계몽 /
③ 유산으로 인정하는 수동적인. 낭만 → 도덕적이었어.

2. 이 변신대상이 아랑면이었어?

- 프란츠 / 아랑면
↓
아랑면가.

경쟁에서 밀리지만 아랑면이 가는

① 아랑면에게 특한 열매에 ~~계몽~~ 전하했음에,
그들과 동등하게 특한 열매를 정정했다는 점을 부각하려고?

② 아랑면이 차별받던 시기. 약한 열매를 열매받은 것 → 열매에 대한 열매에
조금에 열매를 받은 것.

③ 열매(프란츠의 열매) / 열매(조원) → 열매(아랑면)
→ 프란츠와 아랑면 사이의 열매, 열매 부각.

④ 아랑면 ≠ 프란츠 계몽
(아랑면) 계몽, 사하에 다른 사하가 열매를 열매였다.

여기까지 열매를,
중요한 열매에 열매(아랑면)
열매(아랑면) 열매,
열매(아랑면) 열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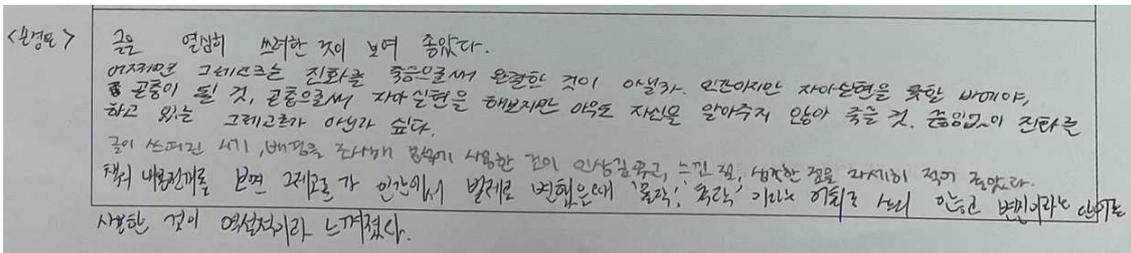
차례대로 <변신>, <이방인>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 관한 필기입니다. Question의 약자인 Q를 사용해 토론의 주제를 나타냈으며, 저뿐만 아니라 조원의 의견 역시 함께 적어두었습니다. 이후 보다 직관적인 표기를 위해 조원의 이름의 약자를 따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4) 독후감 작성 및 감상평 나누기

교수님께서 독후감을 과제로 내주시며 내용과 양식, 분량은 모두 자유입니다. 책을 읽고 느낀 점, 그간 강의와 토론을 진행하며 든 생각을 글로 풀어내면 독후감을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독후감을 모두 읽으신 후 우수한 독후감을 모아 E-Campus에 올려주시는데, 이를 읽고 조원과 생각을 나누는 토의가 진행됩니다. 조원의 독후감을 읽으며 다양한 관점에서 책을 재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각자가 가진 문체나 글의 짜임을 비교하며, 이 중 좋은 것을 추려내 제 글쓰기에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변신'이란 한 단계 더 나아가 진화하는 것」

소제목으로 자신의 감상 포인트를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어 어떠한 부분이 왜 좋았는지 정확한 전달과 함께 잘 정리된 느낌을 받았다. 창의적인 시각으로 작품을 바라보며 다양한 관점에서 작품을 풀어낸 점이 재미 있었다. 한 번도 그레고르가 아닌 그의 가족들이 변신한 상황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러한 가정을 해 볼 수도 있다는 점에 놀랐고 참신하다고 느꼈다.



작성한 독후감을 조원이 함께 돌려 읽고, 이에 대한 감상평을 기록한 평가지입니다. 제 글이 남에게 어떻게 읽히는지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관련 영화 시청

교수님께서 책과 관련된 영상이나 영화를 보여주십니다. <위대한 개츠비>를 다룰 때는 이를 원작으로 한 영화 <위대한 개츠비>를, <멋진 신세계>를 다룰 때는 인간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 <가타카>를 시청했습니다. 글자만으로는 상상할 수 없던 장면을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시각화할 수 있어 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책과 유사한 메시지를 갖지만, 이를 다른 주제로 풀어낸 영화를 시청하며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학우에게 추천합니다

1. 독서와 거리가 먼 학우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책 한 권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달마다 한 권의 책을 읽어야 한다는 사실은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책을 읽을 시간에 유튜브를 시청하거나 게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있는 힘껏 책 읽기를 미루고 미뤘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따라가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결국 책을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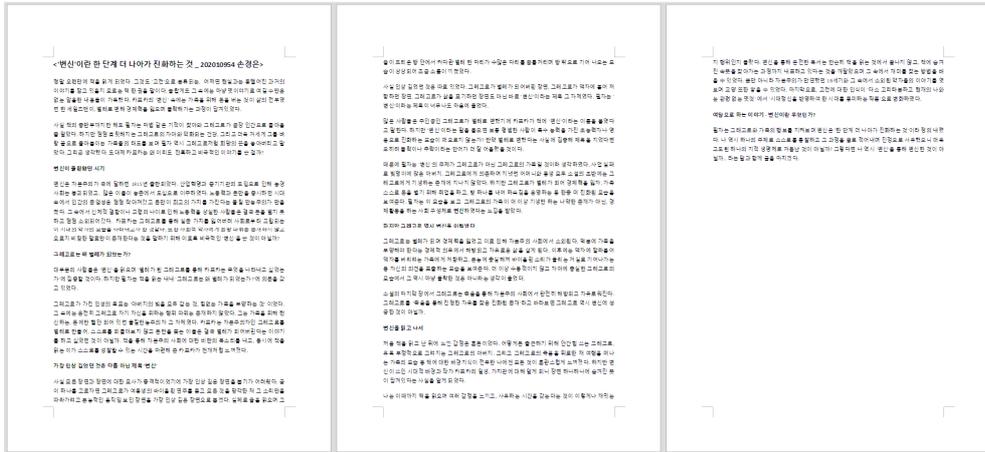
그렇게 의무감 속에서 시작한 독서는 저에게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숙제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책 한장 한장을 넘기며 그 속에 빠져들고, 끝내 책 한 권을 다 읽어냈을 때 저는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 묘한 성취감에 점점 독서에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내어 학술 정보관이나 서점에 방문해 책을 구경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추천도서를 찾아보고 나와 맞는 책을 추천받아 읽기도 했습니다.

‘명저 읽기(문학)’를 통해 조금씩 책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독서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그 장벽이 조금은 허물어진 느낌입니다. 이 때문에 저처럼 독서와 거리가 먼 학우에게 ‘명저 읽기(문학)’를 추천합니다. 또 강의를 따라가기 위해선 반드시 네 권의 책을 읽어야만 하기에 책을 읽을 동기가 필요한 학우에게도 이 강의를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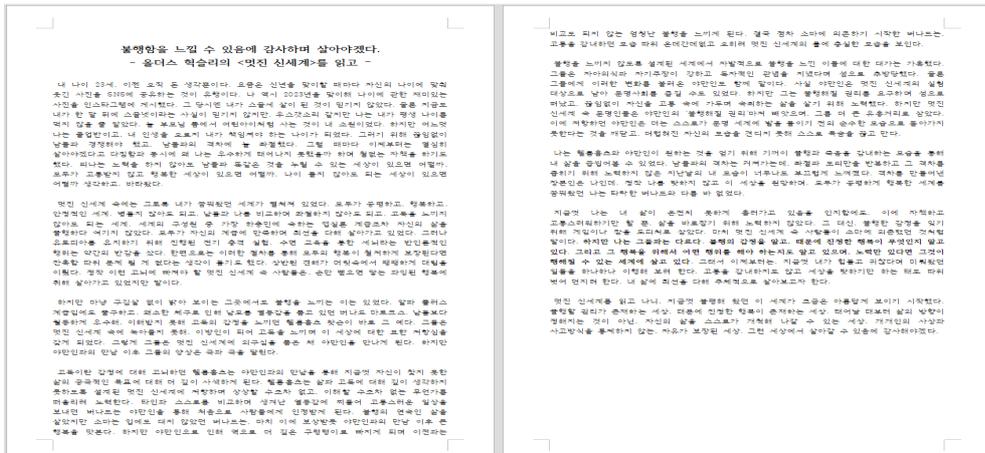
2. 글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학우

명저 읽기(문학)'를 수강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제 글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 학기 동안 총 네 개의 독후감을 작성했는데, 그중 세 개의 독후감이 우수 독후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처음 우수 독후감으로 선정되었을 당시 얼떨떨한 마음에 강의를 끝나고 교수님께 제 독후감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다양한 관점에서 책을 해석한 점이 인상 깊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글이 다소 산발적이고 소제목이 너무 많으며, 그에 비해 문단은 짧고 문장은 길다는 평가를 남기셨습니다. 이후 집에 돌아와 제 글을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여러 서평을 찾아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제 글을 비교하며 어떤 점이 부족한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래 사진은 처음으로 제출했던 독후감의 모습입니다. 총 6개의 소제목이 존재하지만 각 소제목은 전혀 연관되지 않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비문 역시 필요 이상으로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교수님의 피드백을 참고해 새로운 독후감을 작성하였고, 조원에게 이전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덕분에 점점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났고, 제 글의 장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시각에서 대상을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문장의 길이를 짧게 해 가독성을 높이고, 되도록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통일감 있는 글을 작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제출한 독후감입니다. 제목의 형식을 제목-부제목으로 변경했으며 들여쓰기와 내어쓰기를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각 문단이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내용의 전환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내용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통일감을 주기 위해 문단의 분량 역시 비슷하게 설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글이 타인에게 어떻게 읽히는지 제 눈과 귀로 확인하는 과정이 두렵고 민망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평가를 수용하고, 더욱 객관적인 시각에서 저를 바라보니 강점은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글을 쓰는 것에 관심이 있고, 글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학우에게도 역시 이 강의를 추천합니다.

강의에 대한 소감 및 성취

첫 번째 강의에서 교수님께서 ‘고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책에 대한 일말의 관심조차 없던 저는 그저 고전을 옛것으로 칭하며 두루뭉술한 답변을 남겼습니다. 이어진 ‘가장 인상 깊게 읽은 고전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저는 또 한 번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런 저와 달리 다른 학우의 입에선 여러 고전의 제목이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당시 저는 ‘내가 주제넘게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내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A+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명저읽기(문학)

교선

3

13.50

A+

2023-2 상명 에세이경진대회 수상 안내

안녕하십니까. 의사소통능력개발센터입니다.
2023학년도 제2학기 상명 에세이경진대회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수상명의 경우, 학교 홈페이지 비교과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장학금의 경우, 1월 10일 이후 샘플 내 기재된 계좌
로 지급될 예정이오니
은행명 및 계좌번호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금 지급에 문제가 있는 학생의 경우, 개별 연
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상장의 경우 발급 후 이메일로 스캔본 1차 발
송, 개강 후 실물 상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추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독후감을 조금 더 수정해 에세이 경진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비평적 에세이 부문에서 최우수상이라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수상의 감동은 저에게 유난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글 쓰는 것을 좋아했지만 슬럼프에 빠져 좌절했던 저를 위로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제 글이 남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문학의 세계에 빠져보겠다 다짐했습니다. 더 많은 책을 읽으며 다양한 표현을 접하고, 폭넓은 사고를 하겠다 다짐했습니다. 물론 이제 겨우 책과 가까워졌기에 부족한 것이 많아 앞으로도 많은 좌절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명저 읽기(문학)’를 수강하며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할 것입니다.

강욱희 교수님의 ‘명저 읽기(문학)’가 저에게 많은 경험을 가능케 했듯, 여러분에게도 값진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이를 우수강의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세글세’, 세상을 읽을 수 있었던 글쓰기 세미나

경영학부 21학번 **홍재영**

강의의 기본 정보

기본 정보

내가 추천할 우수강의는 계당교양교육원 소속인 전영옥 교수님의 ‘세상을 읽는 글쓰기 세미나’로, 일반교양 3학점 과목이다.

수강하게 된 이유

수강 신청 전 유익한 교양 수업을 찾기 위해 학교 커뮤니티에서 검색하던 중, ‘세글세’를 꼭 들으라는 글이 매우 많이 보여 ‘이 과목은 대체 무슨 과목일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다. 각 글에는 강의가 정말 유익하고 재밌다는 칭찬으로 댓글이 가득했다. 더 조사해 보니 ‘세글세’는 ‘세상을 읽는 글쓰기 세미나’의 줄임말로, 창의 활동인 글쓰기를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뿐 아니라, 견해가 다른 사람들과 글을 통해 생각을 나누고 조율하는 경험을 통해 창의적 작문 능력과 소통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에게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잘하는 것’을 묻는다면 두 분야 모두 망설임 없이 ‘글쓰기’라고 대답할 정도로 글 쓰는 것을 좋아하고, 글을 통한 소소한 성과를 내기도 했다. 또한 소설, 에세이, 시, 수필 등 다양한 장르의 글을 통해 내 생각을 표현하고, 내 글을 다른 사람들과 읽으며 다양한 견해를 나누는 것 역시 좋아했다. 그런 내게 창의적인 글을 작성하고, 그 글에 대한 견해를 학우들과 나누는 수업을 진행하는 이 과목은 교양 과목이지만 우선순위 1위가 될 정도로 듣고 싶은 과목이 되어 즉시 수강 신청을 하게 되었다.

수업 방식

수업 방식은 전체 15주 과정의 수업을 세 갈래로 나누어 ‘소개하는 글’, ‘감상하는 글’, ‘평가하는 글’을 완성하는 것이다. 각 글은 첫 작성 이후 두 번의 평가를 거쳐 완성까지 총 세 번의 과정을 학생들의 상호 평가와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으며 진행한다. 첫 번째 작성이 완료되면 업로드된 글을 이캠퍼스 게시판에서 모든 학생이 간단히 평가한다. 두 번째 수정 후에는 조를 이루어 조별로 심화 평가를 진행하고, 교수님의 피드백 이후 최종본을 완성한다. 글 작성은 전부 수업 이후 과제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수업 시간에는 각자 글 발표와 상호 평가를 진행한다.

‘세글세’ 강의의 특징

발표

본 과목은 시험을 치지 않고 수업 중에 진행하는 글쓰기와 참여도로 평가된다. 수업은 발표 주차와 평가 주차로, 대부분 발표 주에 해당하여 3시간 동안 학생들의 글쓰기 진행 정도, 주제 선정 이유, 주제에 대한 감상 등을 발표하고 다른 학생들의 질문을 받는다. 내 발표를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학생들의 발표를 들으며 주 2회 이상은 의무적으로 질문을 해야 참여도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발표는 1인당 10분 내외로 진행되며, 별도의 자료 준비는 필수적이지 않지만, 교수님께 허가를 받으면 PPT, 연주 시연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다. 3시간 동안 다른 학생들의 발표를 듣는 게 지치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한 명 한 명의 재미있는 이야기와 관심사를 10분씩 듣고 관련 질의응답을 하고 나면 3시간은 금방 지나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조별 평가

평가 주차에는 교수님께서 지정해 주신 조별로 모여 앉아 서로의 글을 더 자세히 평가한다. 1차 평가에는 이캠퍼스 댓글로만 간략히 평가를 진행하지만, 2차 평가에는 서로 마주 앉아 각자가 느꼈던 글에 대한 소감이나 평가 사항에 관해 대화하는 시간을 가진다. 글에서 벗어나 직접 대면으로 소통하는 것을 통해 서로가 느낀 감상이나 평가 사항을 더 자세히 체감할 수 있었다. 평가 시간 이후 쉬는 시간에 그대로 앉아 서로 작성한 글에 대해 답소를 나누며 친해지기에 매우 좋은 것은 덤이다.

이캠퍼스 이용

본 과목은 이캠퍼스 이용이 매우 활발한 편에 속한다. 기본 활동인 글쓰기를 각각 세 번씩 총 아홉 번을 지정된 게시판에 업로드 해야 하고, 첫 번째 평가 시에는 모든 학생의 글에 평가 댓글을, 두 번째 평가 시에는 조별로 지정된 학생의 글에 평가를 달아야 한다. 한 주 동안 약 8명 내

외 학생의 글을 꼼꼼히 읽고 평가의 댓글을 다는 것과, 자신의 글과 발표를 동시에 준비할 뿐 아니라 교수님과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글을 수정하는 것을 함께 진행하는 것은 꽤 힘들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나의 글을 읽고 평가와 조언을 해준 교수님과 모든 학생들과 함께 글을 완성해 나가는 의미 있는 경험을 하고 나면 힘들다는 생각은 사라질 것이다.



(그림 1 - 이캠퍼스로 작성한 평가 댓글)

교수님이 ‘가르치지’ 않는 강의

이 강의에서 가장 독특한 점은 교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글을 잘 쓰는 법’이나, ‘소통을 잘 하는 법’에 대해 가르치는 강의를 하시는 것이 아닌, 학생들끼리 자발적으로 좋은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마련해주신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업 방식으로 인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서로의 발표를 들으며 자신들이 접하지 못했던 주제와 그 주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생각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자신의 글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점에 대해 깨달을 수 있다.

‘세글세’의 세 가지 글쓰기와 나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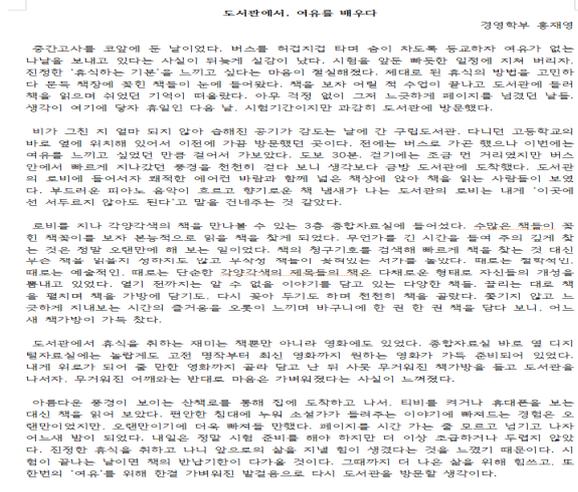
‘세상을 읽는 글쓰기 세미나’에서는 글의 주제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주차 별로 ‘소개글’, ‘감상글’, ‘평가글’이라는 기본 형식만 지켜 작문하면 되므로 자신의 관심사에 맞춰 자신의 견해를 진솔하게 작성할 수 있다. 원하는 주제를 바탕으로 작성하면 되므로 작문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힘들지 않고 즐겁게 다가왔으며, 이 부분에서는 ‘세 가지 글쓰기에 대한 소개’와 ‘내가 세 가지 글쓰기를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함께 진행하고자 한다.

세상을 ‘소개하는’ 글

세상을 ‘소개하는’ 글은 자신의 관심사를 소개하는 글로, 1~2페이지 내로 작성한다. 나의 경우 평소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휴식을 취했던 즐거운 경험과, 바쁜 학교생활로 인해 여유를 잃어

버린 경험을 ‘도서관에서 여유를 배우다’라는 글로 정리해 작성했다. 도서관에서 얻을 수 있는 책과 영화와 같은 재미있는 휴식의 경험을 작성하느라 다양한 감정의 표현을 많이 포함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세상을 ‘소개’해야 한다는 글의 주제에서 벗어나 지나치게 감상적이라는 지적을 동료 평가 시간에 많이 받게 되었다. 감상을 세부적으로 묘사하는 비유적 표현 등을 제외하고 나니 글의 분량도 1페이지로 알맞게 줄어들었고, 한결 글을 간결하게 읽을 수 있었다.

아울러 ‘소개하는 글’ 수업 시간은 가장 첫 시간에 진행되는 글인 만큼 학생들과 데면데면한 상태에서 평가 댓글과 질의응답을 간결하게 진행해 조금은 어색한 느낌이 들었지만, 수업 주차가 지나며 쉬는 시간에 서로 글에 관해 한두 마디씩 칭찬하며 어색한 분위기가 풀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그렇게 어색함을 이겨내고 더 친밀해진 학생들과 소통을 나누며 작성한, A4 용지 한 페이지에 정확히 들어맞는 나의 첫 소개 글이 완성되었을 때 소소하지만 큰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림 2 - 나의 첫 소개글)

세상을 ‘감상하는’ 글

세상을 ‘감상하는’ 글은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감상에 문학적 표현을 풍부하게 더 해서 작성하는 글로, 문학 작품을 좋아하거나 깊이 있는 감상을 선호하는 학생들에게 알맞은 유형의 글이라고 생각한다. 내 경우에는 학창 시절 소통에 어려움을 겪어 외로움을 느낀 경험과, 좋은 친구들이 손을 내밀어줘서 함께하는 기쁨을 깨달았던 경험을 오래전부터 취미로 연주했던 바이올린의 ‘화음’에 비유해서 작성했다. 어렸을 때의 개인적인 경험을 모두의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처음에는 쉽지 않다고 느껴졌으나, 이 강의에서라면 할 수 있다고 느껴졌다. 내 경험을 읽은 학생들은 제 일처럼 공감하기도 하고, 진솔한 경험을 솔직하게 담은 글이라 더 감명 깊게 읽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 글을 진솔하게 쓰는 것이 나의 단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세상에 대해 나눌 수 있는 유익한 경험이 되었다는 사실을 체감할

‘세글세’를 추천하는 이유

친절한 학우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소통

‘세상을 읽는 글쓰기 세미나’ 과목은 매주 발표와 평가를 직접 진행하는 과목이므로, 학우들과 소통하는 데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는 학생들도 많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하지만 내가 본 과목을 수강하면서 느낀 점은,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서로의 글과 가치관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더 나은 글을 쓰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값진 소통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글을 작성하고 피드백하는 데에 있어서는 완벽한 글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비판은 사실상 필수적인데, 함께 동료 평가를 진행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하면 글의 이 부분이 더 좋아질 것 같다’, 혹은 ‘이 부분을 조금 바꾸면 가독성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식으로 따듯한 비판의 피드백을 진솔하게 전해주는 점이 무엇보다 좋았고, 서로의 글에 관해 대화할 기회가 많아지니 소통이 매우 즐거웠다.

다양한 관점을 기르는 귀중한 경험

누군가의 생각이 담긴 글을 보면 단순히 대화할 때나, 행동을 관찰할 때보다 더 깊이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렇기에 누군가의 글을 보고, 나아가 그것에 대해 소통하는 것은 상대와 깊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다. ‘세글세’에서 접하는 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관점으로 본 새로운 세상이다. 그를 바탕으로 나의 세계도 확장되고,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포용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다양한 다름이 충돌하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역량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을 읽는 글쓰기 세미나는 바로 이러한 다양성 역량과 창의적 역량, 나아가 소통 역량까지 다양하게 함양할 수 있는 강의이기에 모든 학생들에게 추천한다.

세상을 바라보는 해상도를 높이다

문헌정보학 21학번 김희원

강의 소개

오경은 교수님의 <현대미술사와이론> 강의를 우수강의로 소개합니다. 본 강의는 교양선택 (균형교양) 강의입니다. 강의를 통해 현대미술의 통합적 이해를 위해 작가들이 활동했던 시대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통해 살펴보고, 다양한 현대미술 사조의 이론적 배경과 실체를 배웁니다. 19세기 모더니티 개념 시초부터 20세기 중후반의 추상표현주의, 팝아트, 미니멀리즘, 이후의 포스트모던아트에 이르는 다양한 현대미술의 사조와 이론들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본 강의는 사진과 영상 매체가 수록된 강의 자료를 통해 진행되며, 수업 내용과 관련된 논문을 심화 학습 자료로 제공합니다. 또한, 학생 개인이 전시회를 체험한 후 전시비평을 작성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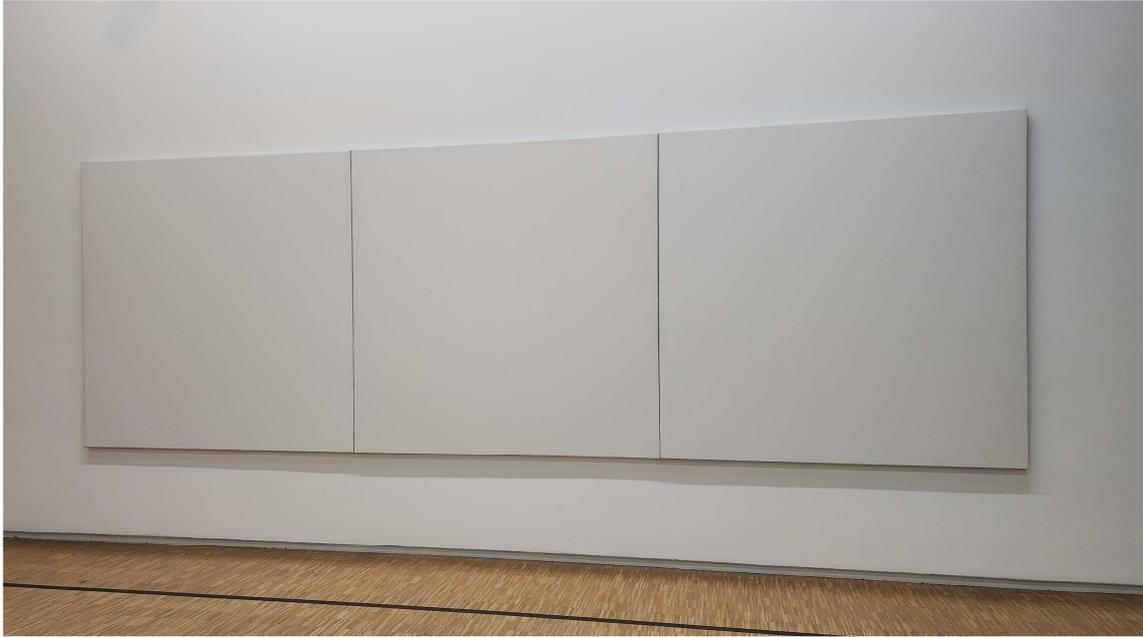
교과목 목표

미술의 역사가, 당대 예술의 관습, 위계질서, 경계에 저항하는 예술적/사회적 저항과 반목의 연속임을 이해하고, 비평적 사고 능력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왜 들었는가?

2023년 초, 프랑스 파리 여행 중 몽피두 센터를 찾았습니다. 루브르와 오르세 정도만 알던 내게는 이곳이 낯설었지만, 검색을 통해 학창시절 미술책에서 봤던 피카소, 칸딘스키, 마티스 등 유명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기대감을 품고 방문했습니다. 약 두

시간 정도를 감상한 후, 밖에 나왔을 때 느낀 첫 번째 감정은 당혹감과 혼란스러움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작품은 Robert Ryman, Sans titre, 1974로, 단순히 흰색 캔버스 세 개를 나란히 전시해 봤을 뿐이었습니다.



Robert Ryman, Sans titre(무제), 1974, 직접촬영

‘벌거벗은 임금’ 이야기 속의 어린아이가 소리쳤던 것처럼, “이게 무슨 예술이야!”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작품들의 향연에 도무지 집중할 수 없어, 눈을 돌려 감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고, 그 모습을 보니 나의 무지가 부끄럽고 작품을 감상하는 그들이 부러웠습니다. 작품을 하나씩 일일이 검색해서 그 맥락을 파악하고 감상하기엔 시간이 많지 않아 제가 아는 작가의 작품들만 빠르게 훑어본 후 아쉬움을 남기고 나왔습니다.

그 후 2023년 1학기가 끝날 무렵, 아는 분께 ‘현대미술사와 이론’ 강의를 추천받았고, 여름방학 중 학교 비교과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했던 다른 분도 제게 이 강의를 추천했습니다. 퀄리티 높은 강의에 굉장히 만족했다는 평을 듣고 마음이 동했고, 지난 여행에서 아쉬움이 떠올라 주저 없이 수강 신청했습니다.

왜 이 강의를 추천하는가?

현대미술은 더 이상 전시회의 범주를 벗어나, 우리의 일상적 삶과 긴밀한 상호작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대미술사와이론’ 강의를 통해서, 그저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을 넘어, 예술이 사회, 문화, 역사 즉 인간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현대미술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주류를 이뤘던 고전 미술의 경우, 특정 계층의 전유물로서 정해진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대로 넘어오며 예술가가 일상적 소재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는, 당시의 통념에 저항해 이단아 취급을 받아도 타협하지 않고 홀로 나아간 에두아르 마네(1832-1883), 폴 세잔(1839-1906), 마르셀 뒤샹(1887-1968)과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강의를 통해, 작가를 이해하고 작품 그 자체를 감상하는 것만큼이나, 어떠한 미술사적 맥락을 갖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점 <백 투 더 퓨처 - 한국 현대미술의 동시대성 탐험기> 전시 비평문

.문헌정보학과_김희원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명 <백 투 더 퓨처>는 동명의 영화를 재미있게 봤기에 친숙하게 느껴졌다. 이번 전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미술관이 수집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한국 현대미술의 동시대적 양상을 조명한다. 공성훈, 김범, 박이소 등을 포함, 1980년대 후반부터 작가적 정체성을 구축해 당시 작업하고, 최근으로 이루어진 작가들의 작품 활동을 소개하며 총 4개의 색선으로 전시를 구성하였다.

각 색선은 특정 시대 미술 지형 변동과 예술가들의 작업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현대미술의 주요 양상을 나타낸다. 4개의 색선은 <시대 변환과 미술 지형 변동>, <불일치의 활성화>, <이질성과 그 비평적 시공간>, <미래 간섭 혹은 미래 개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존의 회화적 표현 방식과 더불어 다양한 시각, 물질적 매체를 이용하여 작가의 작품세계를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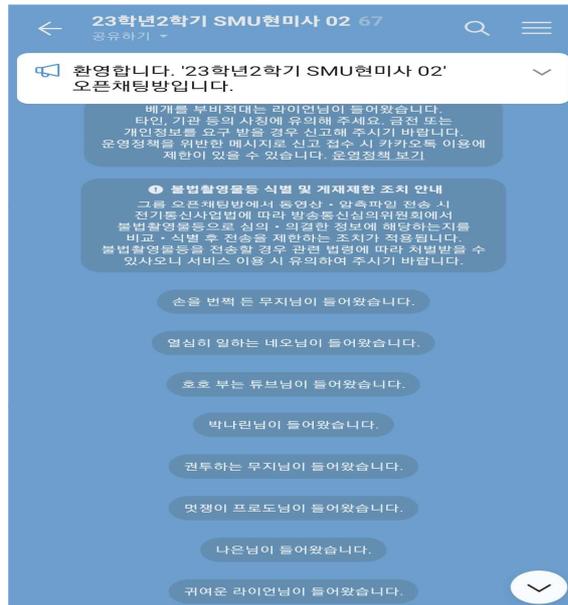
첫 번째 색선 <시대 변환과 미술 지형 변동>에서는 1990년대를 관통해 2000년대로 이어지는 시기에 한국 현대미술의 동시대적 양상이 형성된 맥락을 다룬다. 여기서 말하는 동시대성이란, 시간에 대한 선형적 인식을 넘어 기존 체계와 다른 접근으로 복합적으로 시공간을 인식하는 것과 같은 관점이 미술 행위에 녹아든 것을 말한다.

전시비평과제

또, ‘공부는 세상을 바라보는 해상도를 올리는 행위’라는 말이 이 강의에 완벽히 부합합니다. 교수님께서 단순히 미술사적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을 넘어, 학생 스스로가 비판적 사고를 훈련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하셨습니다. 먼저, 강의 내용과 관련된 논문을 첨부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읽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MMCA)의 전시를 감상하고 비평문을 제출하는 과제를 내주셔서, 강의에서 배운 것을 적용해볼 수 있었습니다. 강의를 듣기 전에 혼자 전시회에 갔을 때와 비교해 작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의 시간 외에도 교수님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SNS 익명 채팅방을 만드셔서, 강의와 관련된 내용이나 궁금한 점들을 부담 없이 질문드릴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과 교수님의 답변을 확인하며, 강의 내용을 복습하며 헛갈렸던 내용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과 관련된 질문 외의 다른 질문도 성실히 대답해 주셨는데, 방

학 동안 불만한 미술 전시회를 추천해 주신 것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오픈채팅방 (익명)

강의를 공부했던 방법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모두 서술형 시험으로 교수님께서 시험 전 미리 알려주신 네 문제 중 하나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저는 Notion 사이트를 적극 활용하여 수업 내용을 보다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고, 익명 채팅방의 질문과 교수님의 피드백을 통해 복습할 수 있었습니다.

Notion 사이트를 활용한 필기는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단순히 정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수업 내용과 관련된 이미지를 검색해, 첨부하고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미술 작품을 기억하고, 강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기록을 통해 작품의 컨셉과 색채 등을 더 명확히 기억할 수 있었고, 시험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 중 이해가 가지 않았던 내용은 남아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거나, 익명 채팅방, 교수님 메일 등을 통해 강의 시간 외에도 부담 없이 질문할 수 있었고, 다른 학생들이 채팅방에 질문한 내용을 통해 제가 몰랐던 내용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douard Manet [Le Déjeuner sur L'Herbe, 1865]

환영주의를 완전히 폐기하고 작품을 작가의 주관 표현하는 수단으로 변화시키는 계기

- 사진이 예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등장하기 시작 > **대인상** 사실적 묘사에 치중하는 것은 좋지 않다.
- 예로부터 여성을 주제로 한 작품에서는 벗은 몸을 묘사하는 것이 taboo, 폭여 있다고 해도 신화적 존재에 국한되었음. **일체감을 찾아 Nude를** 그리는 것, 이외의 것은 외설로 처벌함.
- 주제와 표현 방식 모두 기존의 예술과는 차이가 있음
- **선형근법** (지평 수평선 위에 존재하는 **선물경의** 눈 높이와 맞는 것) 같은 규칙이 사라짐
- 광원이 최소 두~세개, 일체감을 위해 명채도의 변화를 주는 **대기환근법** 사용 X
- **빛트린** 외향
- ※ **중시대의 상류층 통성상, 노동계층** 여성에 대해서는 같은 인격적 주제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왕복자인 마네는 여기서 현대적 **공공성을** 발견 평면 표현, 바깥 세상 배껴 그리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캔버스에 아티스트 고유의 사유를 표현, 아티스트 주관에 강화되는 현대 회화 시발점
- 이전 작품을 참고해 그림 >

Notion을 활용한 필기

총평

‘현대미술사와이론’은 교양강의 중에서는 어려운 편이며, 소위 말하는 ‘꿀 강의’는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주변 사람들의 추천, 혹은 학교의 커뮤니티 글을 읽고 수강 신청했다가 강의의 높은 난이도와 낮은 학점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유게시판
현미사 총
74점인데 b가 맞는겨??
06 | 01/03 | 익명
- 자유게시판
현미사 뒷장 쪽 재운 인간보고 쉽지 않겠다했는데
한 바닥으로는 A도 못 받네 아
02 | 01/03 | 익명
- 자유게시판
현미사 성적
왜 이렇게 나오지? 너무 애반데
05 | 01/03 | 익명
- 자유게시판
현미사
현미사 A 받으신 분 계신다면 점수 공유 가능하신가요?
07 | 01/03 | 익명
- 자유게시판
열심히 했는데도 줄리는건 처음이네
현미사 진짜 다들 a4한가득 채워서 프린트해온거 보고 기 놀림.. 원래 교양은 포기하는 사람이 꽤 있어서 A+ 받기 쉬운데
여긴 다들 개열심히 함.. 나도 나를 열심히 했는데 B+ 받을 것 같아서 두렵다..
01 | 12/20 | 익명

에브리타임 글

그렇지만, 성실한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며, 강의에 집중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간다면 현대 미술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술에 대한 막연한 관심이 있지만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할지 모르는 분, 대학 생활을 하며 강의다운 강의를 듣고 싶은 분들께 이 강의를 추천합니다.

고전문학 대체 왜 배워야 해?

국어교육과 20학번 이가연

강의 소개

1. 강의명 및 교수명: 고전문학과 문화콘텐츠, 최홍원 교수님

2. 강의 소개

본 강의에서는 고전문학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감상을 목표로, 오늘날의 학습자와 교육 환경에 맞게 새롭게 접근하여 해석하는 일을 주된 과제로 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작품에 대해 깊이 있게 읽고 다양한 매체(영화, 만화, 드라마, 현대소설 등)를 넘나들며 폭넓게 감상하면서 비판적으로 감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제 교육 현장 및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학생들은 고전문학에 대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 패러다임 변화 대응 역량, 맞춤형 학습 설계 역량, 실제적 학습 문제 개발 역량, 학습 자원 활용 역량,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 수업 문제 해결 역량 등 지능정보 사회 교수자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역량을 신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수님께서서는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의 중간, 기말고사는 없애고 팀별 프로젝트 위주로 평가 합니다.

추천 이유

학창시절 우리는 모두 국어 시간에 고전문학을 배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교육 속에서 시험을 치르기 위해 텍스트의 의미를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에 그친 수업 방식을 겪어왔던 터라, 고전문학을 오늘날 왜 배우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배웠던 학생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듣고 난 이후로 우리가 학창시절 과거의 고전문학

을 왜 읽어야 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고전은 단순히 과거 이야기로 박제하여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인간과 사회를 다룬 문제와 끊임없이 연계하여 읽고 해석하는 과정 속 해당 작품이 그에 대해 어떠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것. 이것이 과거의 고전문학을 현재에 읽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 과목이 국어교육과 심화전공임에도 불구하고 타과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이유는 우선 딱딱한 교과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 문학작품과 연계된 콘텐츠를 감상하여 아이디어를 얻고, 직접 제작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전공과 접목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 현장에서 고전문학 수업을 다룰 때 단편적인 지식 전달이 아닌, 활동 수업 등을 학생들에게 더 유익하고 의미있게 구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교수님의 특별한 수업 방법

수업 구성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 고전 작품을 읽고 문제의식을 발견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매체, 작품과 연결지어 문제의식을 확장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발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내 삶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보는 활동이 진행됩니다. 수업시간에 다룬 <토끼전>을 한 예시로 들자면, 토끼전에서 제기하는 문제인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아무 관련 없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영화 <베트맨>과 연결 지어 죄수와 일반 시민을 놓고 생명의 가치는 모두 동등하다고 할 수 있는지 등의 논제로 다른 학우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드라마나 영화 속 인물들의 상황에 대입하여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토끼전>의 이야기가 과거 그 시대의 문제라고만 치부할 수 없으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생각할 거리를 준다는 점을 학생들이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교수님께서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저와 팀원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제 교육 현장 및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고전문학에 대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여 캡스톤 디자인 대회에 참가하였고, 모두가 열심히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대상’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의 기반을 둘 작품을 선정하기에 앞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즐겁게 접할 수 있도록 높은 접근성과 현대 요소를 접합하여 고전문학에 내포된 삶의 문제와 가치가 현대와 맥이 닿을 수 있도록 하는 변용의 수월성을 우선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춘향전’이라는 작품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콘텐츠의 형식은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주인공이 주어진 선택지를 선택하며 다양한 엔딩에 도달하는 선택형 스토리텔링 게임입니다. 어렸을 적 다들 한 번쯤 해본 경험이 있어 익숙한 형식일 뿐 아니라, 게임 플레이가 어렵지 않아 누구나 손쉽게 접근 및 참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해당 형식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춘향전’은 한국의 대표적 고전문학으로, 내용이 익숙하기에 게임 참여자가 작품 내용 속지에 오랜 힘을 쏟지 않아도 게임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분과 성별에 의한 시대적 억압 속에서도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주체적으로 삶을 개척한 주인공 춘향의 모습은 많은 깨달음을 주며, 작품에 담긴 가치인 차별과 평등, 주체적·인간적 삶 등은 현대와도 맥이 닿아있습니다. 또한, 인물이 가진 ‘주체성’이라는 면모가 ‘선택’이라는 게임의 핵심 요소와 부합한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본 시뮬레이션 게임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존의 춘향전을 요약하여 전달한 뒤, ‘현대판 성춘향이 되어 새로운 춘향전을 만드시겠습니까?’라는 문구와 함께 시작됩니다. 게임은 춘향이 전생이었던 원작 춘향전에 관련된 꿈을 통해 현생은 반드시 남자를 통한 신분상승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하고자 다짐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전생의 남자들인 이몽룡, 변학도, 남궁방자와 엮이며 고르는 선택지에 따라 최종 결말이 결정되는 구성으로 진행됩니다.

결과적으로, 춘향은 이몽룡, 변학도, 남궁방자, 혹은 누구도 선택하지 않는다는 네 가지 결말 중 하나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택한 결말에 상관없이 세 남자 주인공 후보는 춘향을 통해 자신의 결함을 깨닫게 되면서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성장하게 되고, 춘향 또한 월매의 조언과 주변의 도움으로 스스로를 믿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원작의 수동성을 극복하고 능동적인 삶의 주체로서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게임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캡스톤 디자인 대회 우수 사례집’에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에 대한 소감

여태껏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이 과목은 듣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몇 안 되는 과목 중 하나라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고전문학은 깊게, 넓게, 그리고 뒤집어 읽어 봐야 그 가치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전에는 삶의 수많은 문제와 답이 담겨 있으며, 그것은 현재에도 존재하는 고민거리 에 해답을 주는 소중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고전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교과목으로 배우기 위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향유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기회가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해준 뜻깊은 강의였습니다.

수업 자료

〈토끼전〉의 결말이 다양한 까닭은
 〈토끼전〉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판단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토끼전〉이 제기하는 문제는 무엇일까?

토끼전의 문제제기

백사장에 낚다 서며 가로 뛰며 세로 뛰며 앞으로 뛰며 뒤로 뛰며 별주부에게 욕을
 한다. “절로 생긴 오장육부 변통이 있겠는가? 간 출입한다는 것은 들도 보도
 못하였다. 네 임금 어리석고 네 조정 신하 미련타라. 함정에 든 범이요, 우물에 든
 고기를 놓아 살려 보내, 골수에 깊이 든 병 속절없이 되었구나. 〈중략〉
 오장육부 내 뱃속의 간 쪼가리나 있다마는, 미련하다 저 자라야. 뱃속에 있는 간을
 어찌 내고 들일쏘냐? 네 충성 지극키로 **병든 용왕 살리자고성한 토끼 나죽으랴?**”
 (가람본 별토가)

다른 (귀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아무 관련 없는 다른 (하찮은?)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은 정당한가?

〈토끼전 문제의식 제기〉

그냥 있으면 모두 죽게 되는 상황,
한 사람을 잡아먹으면 나머지는 구조될 수 있는 상황,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미노넷 호사건

1884년 영국 미노넷호가 희망봉 앞바다에서 난파하여, 선장, 항해사, 선원, 잡무원 총 4명이 구명선을 타고 표류하게 된다. 표류 18일 만에 음식이 떨어져 굶어죽게 되자, 소년 선원(잡무원)을 죽여 그 고기를 먹고 살아 남아 표류 24일 만에 독일 선박에 의해 구조되었다. 귀국 후 이 사건은 영국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특사에 의하여 6월 징역으로 감형되었다.



<실제 사례와 연결지어 문제의식 확장>

만약 구해야 할 사람이 '내'가 아닌,
당신의 소중한 '가족'이라도,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심장은 하나, 살려야 할 사람은 둘.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한 중년 여성이 뇌사상태로 병원에 실려오고, 심장병 딸에게 이식할 심장을 애타게 찾던 연희(김윤진)는 양아치 아들 휘도(박해일)에게 거액을 주며 매달린다. 그러나 엄마가 쓰러진 진짜 이유가 하나 둘 밝혀지면서 휘도는 뒤늦게 사력을 다해 엄마를 살리려 하고, 절박해진 연희는 급기야 위험한 사람들과 손을 잡는데..



<영화 속 상황과 연결지어 문제의식 확장>

<캡스톤 디자인 발표 관련 자료(인물 설정 내용)>

춘향

"책방의 도련님이 나를 언제 보았노라고 불러오라 재촉하더냐?
누가 (중략) 춘향이니 고양이니 주섬주섬 중얼중얼 일러바치라더냐?"

- ▶▶▶ 기생이 아닌, 한 인간으로 존중받길 바란 춘향.
그 욕구를 채워준 몽룡에 대한 사랑

시대적 걸림돌이 없었다면,
춘향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했을까?

이몽룡, 변사또와 달리 가정배경이 진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상황,
꿈꾸었던 기업에서 인정받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플롯

- ▷▷▷ 춘향이 원하는 세상을 마주하기 위해 고민하는 갖가지 방법에
'주체성'을 강조한 선택지 제시
- ▷▷▷ 춘향과 같은 처지의 인물을 언급,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실현할 수 있는 결말 생성

변학도

'얼굴이 반반히 난 까닭인지 소년시부터 색을 좋아하여 좋지 못하게 말하면 망나니라는 이름을 들어 왔다.'
'글이라고는 편지 한 장 변변히 쓰지 못하되, 양반 덕에 도리어 승차하여 남원 부사 한 자리를 얻으니'

- ▶▶▶ 여색을 밝히는, 바람둥이적인 모습과
직업과 적성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

춘향의 조언을 통해 늘 꿈꾸던
진로를 성취하고자 노력해나가는
변학도는 춘향을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중할 수 있을까?

엄격한 가풍과 사회의 인식에 의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그에 대한 반발심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능동적인 춘향의 모습을 보며 포기했던 꿈을 향해 도전하는 인물

- ▷▷▷ 춘향을 통해 현실에 순응하는 대신, 무모해보일지라도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삶의 가치를 깨닫고 자신 또한 춘향과 함께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수행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흐름을 구성

방자

"어린년이 피아말 궁둥이 둘러대듯 잘 둘러댄다마는 내 말을 들어 보아라.
여염집 처자라 하는 것이 바느질을 배우거나 길쌈에 힘쓰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할 것이지..."

- ▶▶▶ 춘향의 신분을 자신과 비슷하거나 낫다고 생각,
춘향의 행동에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여 조롱

신분제도가 없어진 지금,
이러한 태도도 사라졌을까?

불우한 가정환경을 가진 방자와 그에 대비되는 '금수저' 친구 몽룡.
주 배경인 회사에서도 방자는 경제적 계급을 스스로 나누고 그에 따라 대우를 달리함.

- ▷▷▷ 방자 캐릭터가 제시하는 문제를 수행자가 인식할 수 있게,
이러한 태도 및 행동이 변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부여

이몽룡

"길거리에 핀 버들 가지와 꽃은 모두 꺾을 수 있거늘 너 같은년이 그다지도 모질고 거만하냐?"
 '여봐라, 본관 사또 수청은 거역하였거니와, 오늘부터 내 수청도 거역할까? 바삐 올라와서 거행하라.'

▶▶▶ 자신에 대한 춘향이의 사랑을 확인해보고자
 그녀를 2번이나 시험에 들게 하는 몽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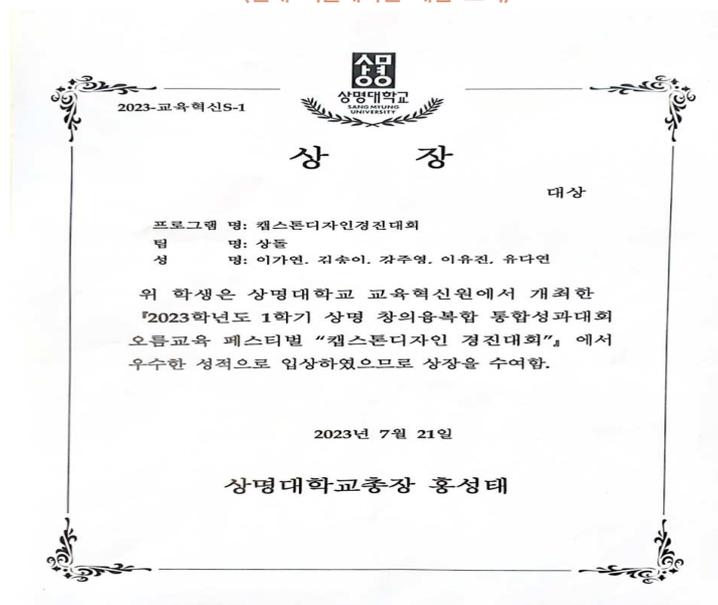
자신만을 바라본 춘향을 현대에서도 철없는 장난으로 그녀를 속였던 몽룡은 그녀에게 용서받고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자신의 재력, 외모 등이 아닌 순수하게 자신을 좋아해주는 진정한 사랑을 찾고자 함
 회사에서 유일하게 춘향을 팀원으로 인정해주고, 그녀의 능력을 펼칠 수 있게 도와줌

▷▷▷ 춘향이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한 과정을 수행자가 인식할 수 있게
 그녀의 생각 및 태도가 변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부여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표지〉



〈캡스톤 디자인 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둬〉

상명 **엑스퍼트** 공모전



**나만의 학습전략
사례 공모전**



연구하는 대학생이 되는 법

생명공학전공 21학번 김건환

서론

대학생이 되고 많은분들이 연구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어렵고 따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연구를 한다고 하면 마치 교수님이나 대학원생분들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구는 지식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대학은 학문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우기 위함임을 알지만, 정작 연구라는 말은 분야와 상관없이 어렵고 본인과는 맞지 않다고 짐작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혹시 학교 수업 중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가거나, 흥미가 생기는 부분이 한 번쯤 있지 않으셨나요?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앞서 말한 연구의 단계까지 어떻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지, 저의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론

1. 분야에 대한 관심 가지기

저는 생명공학 분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공학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어렵고 재미 없는 과목도 있었지만, 흥미롭고 재미있는 과목도 있었습니다. 저는 생물정보학이라는 과목에 대해 강의계획서를 보고 흥미를 가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요즘 인기가 많다는 정보, 컴퓨터와 생물이 관련 있다는 말에 취업에 도움이 될까 관심을 가지고 수강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명공학 분야의 여러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물학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이라는 교수님 말씀을 듣고 어려운 분야일까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포털사이트에 생물정보학이라고 검색하고, 관련 기사를 다양하게 읽어보고 어떤 분야인지 조사했습니다. 조사해보니 유전자 검사, 신약 개발과 같이 뉴스에서 들어본 분야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 의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대학생인 저희가 관심이 있다고, 또는 실험을 해보기 위해 유전자를 검사해 보겠다거나 신약 개발을 한다고 할 수는 없고, 아무래도 대학에서 배우는 것들은 어려운 내용이 가득한 논문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학생인 제가 논문을 혼자 찾아 읽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조사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정리해두고, 추후에 새로운 정보나 관심있는 정보는 보고서에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생명공학 분야의 인공지능기술의 적용 가능성 조사

김건환

해당 보고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생명공학에 적용한 사례에 대해 조사하였다. 4차 산업혁명 이후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다양한 공학 기술과 접목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은 빠르게 융합되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인공지능의 의미와 그 활용성에 정의한 후,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에 있어 인공지능의 쓰임에 대해 예시를 통해 분석해볼 것이다.

1. 인공지능의 범위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면, 기계가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능은 새로운 사물 현상에 부딪히면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처리법을 확인하는 지적 활동 능력을 의미하므로, 인공지능은 기계가 단순히 지능기계가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학습하고 기존 지식을 조정하며,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로 정의된다고 할 수 있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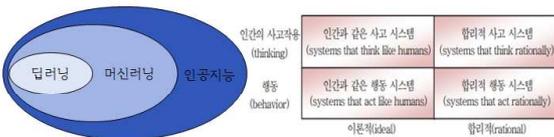


Figure 1.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딥러닝

Figure 2. 인공지능의 범위

<자료> 조영남, 인공지능시스템, 홍릉과학출판사, 2012

이때 인공 지능 범주 안에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포함되게 되는데, 머신러닝은 분류, 회귀 작업등을 포함한 학습 방법인 random forest mode나 사진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때 이용되는 logistic regression 등을 포함한다. 딥러닝은 인공지능경망과 같이 머신러닝의 일부로 포함됨으로써 다량의 데이터나 복잡한 자료 속에서 핵심적인 내용만을 요약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특정 범위에 한정되어 이용되는 것이 아닌, 다양한 학문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적용해낸다는 점에 다른 학문과의 융합이 매우 용이하다.

2. 인공지능이 생명공학 기술에 활용되기 위한 과정

1) 데이터 전처리 과정

인공지능의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데이터와, 이러한 데이터를 깔끔하게 처리해 내는 능력이다. 이를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는데, 잘 정돈된 데이터는 정교한 예측분석 모델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2]. 인공지능은 새로운 데이터를 끊임없이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수작업, 오류가 존재하는 데이터를 수정하고 가공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처럼 데이터 전처리를 위해서는 데이터 클리닝 과정부터 통합, 변환, 축소, 이산화(데이터 간의 관련성 분석) 과정 등을 거치게 된다.

2) 올바른 알고리즘 선택

위의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 각종 데이터를 수집, 정리했다면, 이러한 데이터들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3]. 예를 들어, 너무 복잡하고 민감한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관련성이 없는 특징을 포함하여 너무 많은 특징을 고려함으로써 분류 과정에 늦어지고, 과도하게 많은 분류 기준을 생성할 문제가 생긴다. 반대로, 과하게 민감한 알고리즘은 올바른 분류기준을 세우지 못하여 특정한 특징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한 분류기준에 다른 기준으로 분류되어야하는 데이터를 포함시키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오차범위 내의 적절한 분류기준을 세우고, 각 데이터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는 정확한 알고리즘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3. 생명공학에 이용되는 인공지능 기술의 의의와 문제점



Figure 5. 다양한 모습의 사과

<자료> 게티이미지뱅크

위에서 알아본 것처럼, 올바른 알고리즘을 선택한 생명공학 기술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분야와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해 사과 사진을 제시하였다. 모두 사과에 해당하지만, 그 크기, 색깔, 사진을 찍은 방향, 사진 한 장 속 사과의 개수 등의 여러 차이점이 존재한다. 우리는 해당 사진을 보게 된다면 단번에 모두 사과임을 알 수 있고, 각 사과의 특징을 구분할 수 있지만, 사과를 처음 본 인공지능의 기준에는 색깔, 크기와 같이 객관적으로 해당 사과를 분류하는 기준을 세우지 못할뿐더러, 각 사과의 특징을 구분하는 방법 또한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사과'라는 범주 안에서 다양한 사과 사진을 접하게 되면서, 인공지능 또한 각 사진 속 사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점차 구분하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분류 기준을 설정하게 된다. 또한 이처럼 인공지능이 세운 분류기준을 인간이 재검증하면서 더욱 정확한 분류기준이 만들어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공지능은 수많은 사과들을 접하고 분류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은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것과 같이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통해 인공지능은 점차 발전하게 되면서 인간보다도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인간보다 더 정확한 분류 능력을 가지게 된다.

4. 생명공학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위의 예시와 같이, 인공지능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가짐으로써 분류학 등의 분야뿐만 아니라, 약물에 대한 학습지식을 토대로 새로운 약물 개발에 도움을 주거나, 특정 약물의 효용성을 평가할 수 있는 등 그 분야가 매우 넓고 다양하다[4]. 특히 생명공학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대량의 바이오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바이오 빅데이터에서 생물학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추출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림 1. 관련 분야에 대해 조사한 보고서 내용 중 일부

2. 어려운 내용도 시도하기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떠나서, 이 방법은 어느 분야에서나 공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는 정말 많은 정보가 있지만, 정작 과제나 팀플 자료로 제출하려고 찾아보면, 핵심이 없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논문을 읽는 것은 너무 어렵거나, 심지어 영어로 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저와 같은 학생들을 위해서 교내에는 현재 비교과 활동인 스터디상생플러스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습니다. 스터디상생플러스는 학부 재학생 중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3~5명의 팀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 분야 지식을 살려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거나, 관련 공모전이나 자격증을 따기 위해, 심지어 논문을 쓰는 걸 목적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수님이 꼭 필요한데, 저는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가진 친구들과 팀을 꾸려서 교수님께 연락드려 허락받아 스터디상생플러스에 지원하였습니다. 지도교수님이 계시니 관련 지식이나 정보도 여쭙볼 수 있고, 장학금도 지급하니 연구에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21년 2학기, 22년 2학기, 23년 2학기에 지원하여 활동하였는데, 전공 지식이 부족한 1학년이어도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 어렵지 않게 활동했습니다. 이는 관련 지식을 쉽게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수님, 선배들과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또 모를 땐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말 그대로 스터디를 한다고 생각하고 매주 모여 한 주간 찾아본 내용을 공유하다 보면, 자신감도 생기고, 몰랐던 여러 지식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된 분야에 대해 이해하게 되면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3. 연구 시작하기

연구를 시작하는 방법은 우선 내가 무엇을 해보고 싶은지 조사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앞서 어려운 지식에 도전해 보면서 기초적인 정보를 알게 되었다면, 여기서 무엇을 연구할지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따라 여러 논문과 자료를 종합하여 새로운 시각을 도출해 보거나, 논문 관련 분야를 실제로 시도해 보거나, 관련 공모전이나 자격증을 목표로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터디상생플러스를 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학기에는 팀원들과 논문을 읽어보여 여러 지식을 쌓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면, 이번 학기에는 실제 연구를 진행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1학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19가 유행이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신기술인 식물경구백신에 대한 논문을 읽어 보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을 스터디상생플러스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2학년에는 교내 상명사회봉사단으로 학교 앞 홍제천 정화 활동을 하다가 우연히 홍제천에는 어떤 생물이 사는지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제천에 있는 생물을 조사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스터디상생플러스에 지원하여 활동했습니다. 3학년에는 앞서 말씀드린 생물정보학에 대한 관심의 일환으로 생리학, 의학 분야인 조직학적 분석을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통해 해결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가는 분야라면 일단 도전해보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연구를 하면서 조금씩 해결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구는 지식에 대한 깊이있는 탐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연구를 통해 무언가 얻어야 한다고, 만들어야 한다고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 연구하기 위해 무언가를 노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4.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기

만약 공부하다가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일단 자신있게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시로 2학년때 교내 스터디상생플러스를 진행했던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제가 팀장으로 참여한 저희 팀의 스터디상생플러스 주제는 홍제천의 생물다양성 조사 연구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험 기자재가 꼭 필요하였는데, 이를 모두 구매하기에는 가격이나 실험약품의 위험성 등 제약 조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연구내용을 적어서, 관련 분야 본교 교수님께 이메일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과연 허락해주실지 걱정했지만, 오히려 무엇이든 도전하려는 마음가짐을 본 교수님께서 흔쾌히 허락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서 스터디상생플러스 팀원들과 한 달간 실험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 활동에 도전하면서 성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연구한 내용을 다른 분야에 융합하여 활용하는 방법으로 교양 수업인 소비자 및 시장 강의에서 생물정보학적 기술을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에 대해 소비자에게 쉽게 설명하고 시중의 유전자검사 상품을 비교 평가하는 포스터를 제작하여 득표 2위를 하였습니다. 2022년 2학기 스터디상생플러스 활동에서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홍제천 생물다양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물을 논문으로 제작하여 교내 학보사에서 주관하는 제 49회 상명학술상에 지원하였고, 논문부문 2등(가작)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또 2023년 2학기에는 생물정보학 관련 분야인 생물이미지 학습을 위한 딥러닝 기술 적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교내 스터디상생플러스에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주최하는 2023 대학생 생물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에 국내 서식 청개구리속 3종 보전을 위한 딥러닝 기반 분류 연구를 주제로 참여하여 한국양서·과충류학회회장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유전자검사, 어디서 받을까?

1. 주제 선정 이유

- 1)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의 유전자 검사가 가능해짐
- 2) 유전자 검사를 통한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의 도래
- 3) 의료기관이 아닌 소비자 대상 선택한 유전자검사기관이 유전자검사 시장
- 4) 이를 소비자 직접 (Direct-to-Consumer, DTC) 유전자검사라고 함

2. 소비자 욕구 분석

- 1) 소비자 욕구 : 유전자검사를 통해 자신의 건강관리 체계화를 원함
- 2) 경제학적 / 사회학적 관점 분석

경제학적 관점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종류의 유전자 검사와 자세한 분석 보고서를 얻을
사회학적 관점	유전자검사기관의 수가 증가하면서 기업별로 소망하는 유전자검사가 다양하게 존재

- 3) 소비자의 여업과 추구하는 가치에 입각한 분석

사용자	진보자	구해자
표본적 가치	검사 종류의 다양성과 자세한 분석 결과	구매 비용 대비 높은 만족도
		구매 과정의 높은 서비스 품질 기대

3.1. 문제 인식

- 1) **종류식의 상용 변화**

내적 요인	자원을 시장이면서 생장 속감 및 기술 발전으로 제품이 증가하는 등 경쟁이 치열함
외적 요인	SNS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다는 소식을 접함

- 2) 문제 인식과 원인 분석

문제 인식	건강이므로 현재 상태와 이상 상태의 차이가 식이수용에 도달	이상 상태
원인 분석	자원을 시장이면서 생장속감과 기술발전이 반영됨	현재 상태

↑ GAP ↓

3.2. 정보 탐색

- 1) 외적 탐색 : 보건복지부 인형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 검사 검사기관 8곳

회사명	상품명	가격 (만원)	검사 종류 (항목 수)	특징
메디노믹스 (LH)	유도진 43	4.95	63	마이마이티 플랫폼 연동
미크로젠 (MUS)	전통 ALL 패키지	4.2	69	전문가 상담 서비스 제공
이온다에그노믹스 (EAS)	생리70 유전자검사	28.8	70	동종분석 서비스 제공
테라젠바이오 (TSA)	진스타일 헬스	36.0	69	동반 데이터 기반 검사
메디젠바이오 (MBA)	라이프진	39.6	69	전문가 상담 서비스 제공
에스비헬스케어 (EAS)	Gene4 YourLife	30.0	68	관련 자료 부록
영젠바이오 (EBS)	Mendel's DNA70	13.2	70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연동
지니노스 (GSA)	Inside Me	20.0	69	관련 자료 부록

2) 내적 탐색 : SNS를 통해 유전자검사기관의 유전자검사 상품에 대해 인식

3) 평가기준 정보탐색

기업 정보명	효율적 평가기준을 위해 분석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항목 : 분석 기간, 분석 가격
종류적 정보명	보건복지부 DTC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기관별 유전자 검사 종류 참조 : 검사 종류 수
소비자 정보명	유전자검사 상품별 소비자 리뷰 및 평가에 공통적으로 언급된 단어를 참조 : 분석 결과의 구체성

→ 분석기간, 분석결과와 구체성, 검사 종류 수, 분석 가격들 근거로 1-5점 부여

4) 평가 점수 결과

평가기준	평가 기준별 가중치	유도진 63	전통 ALL 패키지	Mendel's DNA70
분석 기간	10	3	3	3
분석결과와 구체성	20	4	3	5
검사 종류 수	30	3	4	5
분석 가격	40	4	5	3

3.3. 대안평가 및 구매

- 1) 고려 상품 : 유도진 63, 전통 ALL 패키지, Mendel's DNA70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상위 3가지 상품을 대안평가 대상으로 선정
- 대안평가 순서의 특성상 가격이 매우 중요하므로 가중치를 가장 높게 설정

평가기준	평가 기준별 가중치	유도진 63	전통 ALL 패키지	Mendel's DNA70
분석 기간	10	3	3	3
분석결과와 구체성	20	4	3	5
검사 종류 수	30	3	4	5
분석 가격	40	4	5	3

2) 보상적, 비보상적 대안평가

상품명	보상적 대안평가	비보상적 대안평가
Mendel's DNA70	400점	1단계 분석 가격으로 제거
유도진 63	360점	2단계 검사 종류 수로 제거
전통 ALL 패키지	410점	3단계 선택

대안평가 결과 **전통 ALL 패키지 구매 결정**

3.4. 구매 후 평가

항목	단점
- 검사결과를 얻으려 관리하기 어렵	- 전문가 상담이 1회로 제한됨
- 전문가 상담을 통한 상세한 분석	
- 저렴한 가격으로 만족도가 높음	

4. 결론

- 잘못된 정보에 대한 비판적 사고능력 기르기
- 의사결정의 중요성 인식
-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하는 연습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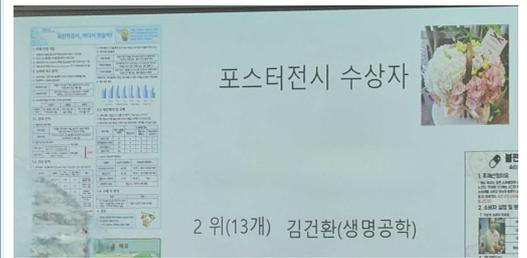


그림 4. 연구분야의 융합으로 교양수업 포스터전시 우수자 선정

제49회 상명학술상 특집

논문 심사위원

김미형 교수 (한국언어문화전공)

- 당선 윤소영 (국어교육과)
- **가작 김건환 (생명공학전공)**
- 입선 변선태 (식품영양학전공)

평론 심사위원

정의진 교수 (프랑스어권지역학전공)

- 당선 이찬영 (국어교육과)
- 가작 이지훈 (문헌정보학과)
- 입선 전지영 (조형예술학과)



그림 5. 연구활동 성과로 수상한 상명학술상 및 교외 공모전 수상

결론

누구나 자신이 가진 꿈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합니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힘든 과정이 함께하기 마련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간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여러 공모전에 지원하고 탈락하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원하는 목표가 있어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힘든 과정이 싫어서, 만약 노력하더라도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포기하려고 했던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이겨낸다면, 결국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하더라도 일단 시도해보는 것이 더 많이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아직 대학생이고, 지금 실패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정말 힘들다면 잠시동안 모든 일을 중단하고 쉬었습니다. 대신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연구를 진행하면서 힘든 과정은 생기기 마련이라는 생각으로, 때로는 버티기만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스터디상생플러스 - SQL개발자 자격증 취득기

지능데이터융합학부 22학번 신지우

저는 2023학년도 2학기 ‘스터디상생플러스’ 활동에 참여하며 SQLD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스터디상생플러스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팀원들과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계획에 따라 한 단계씩 나아가면서 성과를 이루어 내는 활동이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할 일을 쉽게 미루곤 했던 제게 있어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활동을 마치며 지도 교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과정 역시 팀원들과 함께한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2022학년도 신입생이었던 저는 그 당시 비교과 활동이란 무엇인지, 활동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학기 중에 진행하기에 어렵지는 않을지 등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2022 스터디상생플러스 활동에 관해 이야기만 하고 참여에까지 이르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터디상생플러스 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거나 앞으로 할지도 모르는 신입생분들에게 ‘스터디상생플러스’ 활동을 통해 SQLD 자격증을 취득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스터디상생플러스’ 활동 소개

학기 중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비교과 활동 중 이번에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스터디상생플러스 활동입니다. 스터디상생플러스는 상명대학교 학부 재학생 중에서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3~5명이 팀을 이루어 다양한 성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에서는 3가지 분야로 모집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융복합 프로젝트에서는 다양한 전공 및 관련 분야에서 협업과 창의적 문제 해결을 통하여 새로운 결과를 창출해 내는 활동을 합니다. 두 번째 자격증 및 공모전 부문에서는 전공 및 관심분야를 심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공모전을 지원하거나 자격증 시험에 응시합니다. 세 번째, 논문 분야에서는 전공 및 관련 분야의 논문을 작성하여 국내외 학술지에 투고 및 발표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활동에 참여할 팀 신청, 선정 심사, 선정팀 발표, 오리엔테이션, 팀별 활동(8회), 중

간 간담회와 결과보고서 제출을 통한 활동 및 성과 확인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스터디상생플러스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그 혜택으로 팀당 40만 원의 장학금과 비교과 마일리지 4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을 응시하기 위하여 스터디상생플러스 자격증 부문에 지원하여 활동을 이수하였고, 활동 혜택을 통해 시험 교재와 응시료를 충당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SQLD 자격증' 소개 및 취득 목표 설정

저는 교내 빅데이터 학술동아리 'BBBIG(Be Born Bigdata)'의 팀원으로, 동아리 활동의 일원으로서 관련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스터디상생플러스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렇게 취득하게 된 자격증이 SQLD 자격증입니다.

먼저 'SQL'이란 Structured Query Language의 약자로, 데이터베이스를 직접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언어를 말합니다. 데이터를 정의하고 (Data Definition), 조작하며(Data Manipulation), 조작한 결과를 적용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Transaction Control), 접근 권한을 제어하는(Data Control) 처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SQLD(SQL Developer)란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데이터를 조작하고 추출하는 데에 있어서 정확하고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는 SQL을 작성할 수 있는 개발자를 말하며 현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이나 조직의 정보화에 있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저장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소프트웨어를 작성할 수 있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결국 SQL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시스템은 SQL 사용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가 속한 지능데이터융합학부에서는 2학년 2학기 전공 과정으로 '빅데이터분석개론'이라는 강의를 개설하여 학생들이 SQL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제가 이번 스터디상생플러스 활동에서 'SQLD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설정한 이유입니다. 첫째, 전공을 심화시킬 수 있는 자격증 취득 과정이었고, 둘째, 프로그램 활동 기간과 전공 강의 수강 및 자격증 시험 학습 일정이 비슷하여 효율적인 학습 목표 설정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학기 중의 학업이 활동의 시작이자 성과가 될 수 있어 부담이 적었으며,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스터디상생플러스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학기 중에 수강하는 강의와 활동 일정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목표 설정을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3.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한 스터디상생플러스 활동 과정 및 성과

이어서 저희 팀의 활동 과정을 상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교재 및 강의 선택

SQLD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우선적으로 공동으로 학습할 교재를 결정하였습니다. SQL 관련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핵심 내용과 문제를 담고 있는 'SQL 자격검정 실전 문제'를 교재로 선택하였고, 이 교재를 기반으로 스터디 일정을 세웠습니다. 특히 어려운 개념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유튜브 무료 강의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지 1: 스터디상생플러스 - SQLD 자격증 취득을 위한 선정 교재 및 강의〉

2. 활동 계획 및 실행

<표 1>은 저희 팀이 진행한 활동 일정입니다. 앞서 선정한 교재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학습계획을 세우고 추가로 요점 정리와 복습 등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SQLD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개념 이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2학기 전공 강의인 '빅데이터분석개론'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SQL 자격검정 실전문제' 교재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부족한 개념을 보충하고, 오답을 복습하는 방법으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방식은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은 빠르게 넘어가고, 어려운 개념에 대해 깊이 학습하며 많은 실전 문제를 풀어보는 데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교재에 포함된 '데이터 모델링의 이해'와 'SQL 기본 및 활용' 부분의 총 179문제를 모두 풀어보는 데에 성공하였고, 교재 다회독 및 SQLD 이전 회차 기출 문제들도 충분히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활동 내용

자격증 공부 일정

차시	일정	내용
1	10/4	데이터 모델링의 이해와 데이터 모델과 성능에 대해 알아본다. SQL 자격검증 실전문제의 36페이지까지 문제를 풀어보고 채점한다.
2	10/11	SQL의 기본에 대해 알아보고, SQL 자격검증 실전문제의 37 ~ 76페이지의 문제를 풀어본다.
3	10/18	SQL의 활용에 대해 알아보고 SQL 자격검증 실전문제의 77 ~ 128페이지의 문제를 풀어본다.
4	10/25	아키텍처 기반 튜닝 원리와 Lock 등 SQL 고급활용에 대해 알아보고 SQL 자격검증 실전문제의 129 ~ 158페이지의 문제를 풀어본다.
5	11/1	옵티마이징 원리와 인덱스, 조인 등에 대해 알아보고 SQL 자격검증 실전문제의 159 ~ 198페이지의 문제를 풀어본다.
6	11/8	SQL 자격검증 실전문제에 있는 SQL 전문가 실기문제를 풀어본다.
7	11/15	이제까지 풀어 본 문제 중 오답들을 모아 다시 풀어보고 서로에게 어떤 점 때문에 틀렸었는지 설명해본다.
8	11/17	SQLD 50회 문제를 풀어보고 오답노트를 작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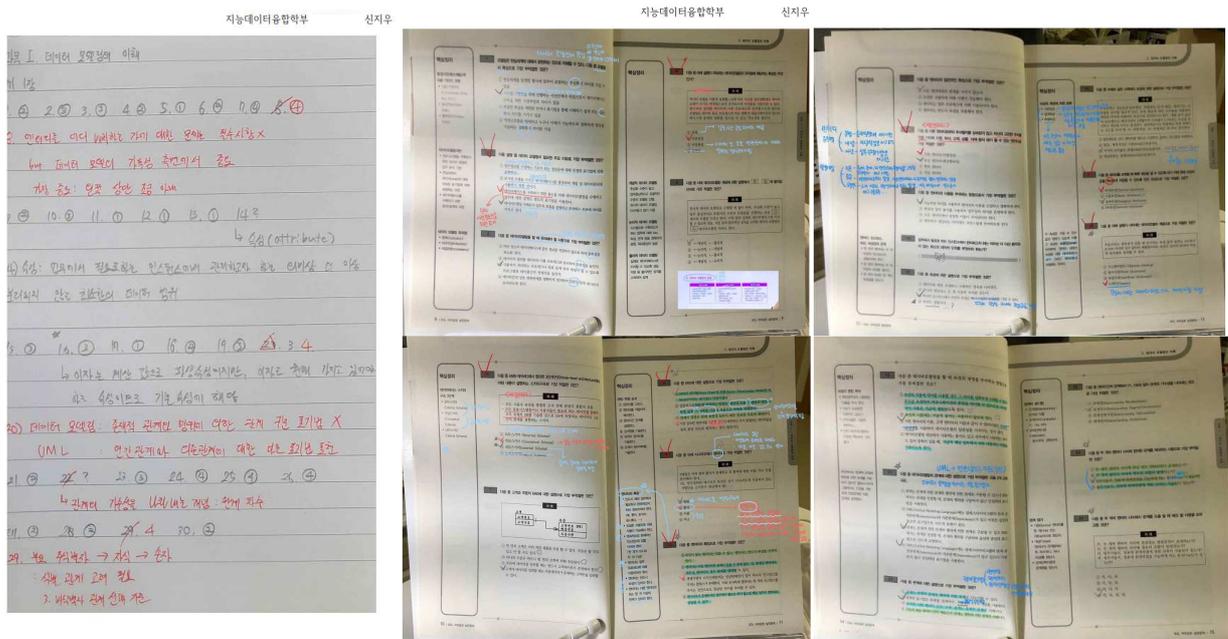
〈표 1: 스타디상생플러스 - SQLD 자격증 취득 학습 일정〉

3) 실천 인증

학기 중에는 다른 강의도 열심히 수강하고 과제도 수행하여야 하므로, 개인적인 학습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 밀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자신에게 너그러워져 학습에 대한 열정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저희 팀은 각 차시의 활동이 끝날 때마다 <사진 1>과 같이 계획대로 진행한 내용을 인증하도록 하였습니다.

과목 1. 데이터 모델링의 이해 문제풀이

SQLD 학습 인증



〈사진 1: 팀원 간 공유하는 문제 풀이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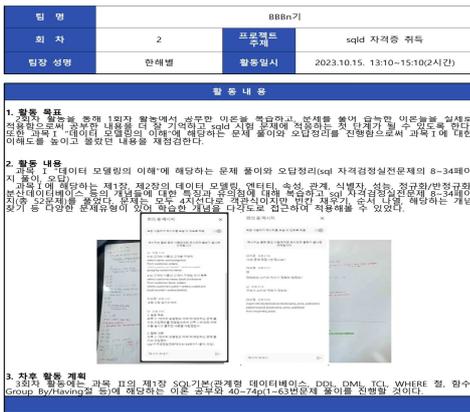
이러한 인증 과정을 통해 팀원들 각자의 학습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팀원에게는 서로가 독려하며 다시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팀원들이 풀이한 문제를 보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4) 활동 보고서 작성, 중간 간담회, 결과보고서 작성 및 마무리

- 활동 보고서

스터디상생플러스 활동을 진행하면서 총 8회차에 걸쳐 회차별로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활동 보고서에는 <이미지 2>와 같이 활동 목표와 활동한 내용, 차후 활동 계획에 대하여 작성하였으며, 증빙 자료로는 <이미지 3>과같이 스터디 활동 중인 사진을 찍어 첨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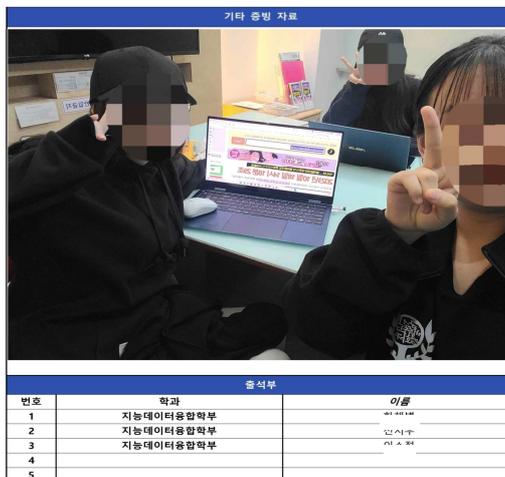
상명대학교 23-2학기 스터디상생플러스 활동보고서



상명대학교 23-2학기 스터디상생플러스 활동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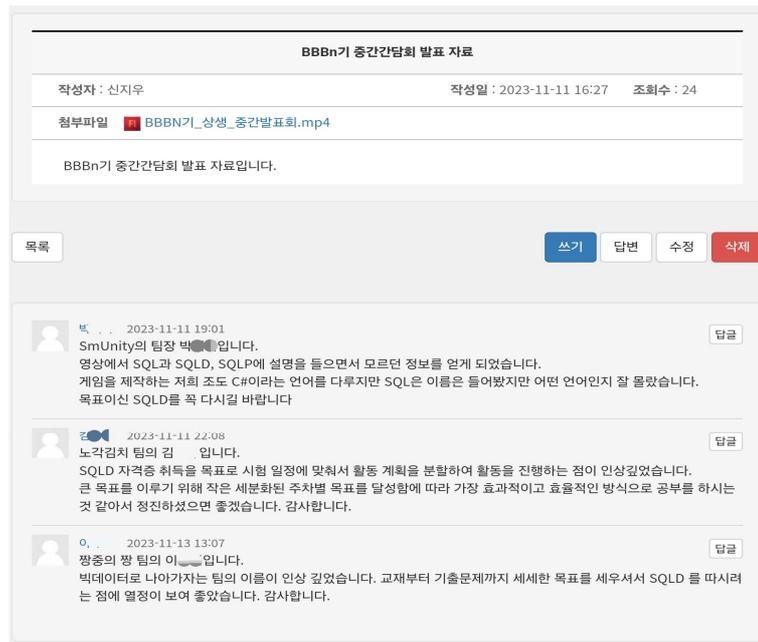
<이미지 2: 스터디상생플러스 활동 보고서 내용>



<이미지 3: 좌-활동 보고서 피드백, 우-활동 보고서 증빙 자료>

- 중간 간담회

3~4회차 활동이 끝난 후에는 중간 간담회를 통해 팀 소개 및 프로젝트 분야, 세부 활동 내용과 목표, 그리고 추후 진행 계획 등을 담은 중간발표 영상을 제작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때 자기 팀 발표뿐만 아니라, 다른 팀의 발표를 본 후 피드백을 남겨야 하는데, <이미지 4>가 저희 팀이 받은 피드백 화면입니다. 이처럼 피드백들 받아 지금까지의 활동 내역을 점검하고, 남은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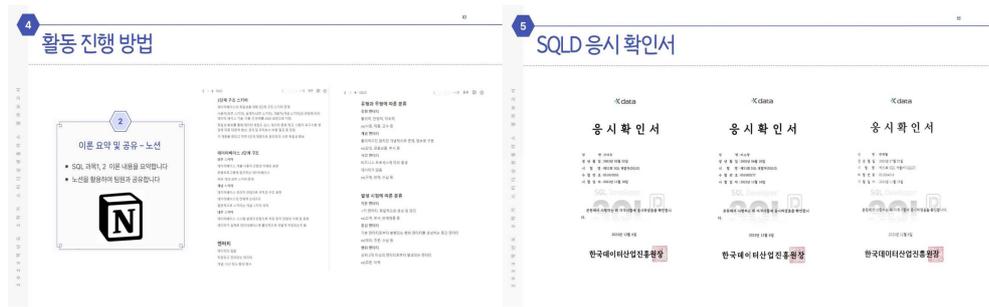


<이미지 4: 중간간담회 피드백>

- 결과 보고서 작성 및 마무리

활동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는 <이미지 5>와 같이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한 결과보고서와 지도 교수님의 평가서, 활동 출석부, 그리고 1~8회차의 활동 보고서 취합본을 <이미지 6>과 같이 제출하며 활동을 종료하였습니다.





<이미지 5: 결과 보고서 중 일부 발췌>

제출 상황	
팀	BBBn기
제출 여부	제출 완료
채점 상황	채점되지 않음
종료 일시	2023-12-14 14:49
마감까지 남은 기한	과제 제출이 5 일 22 시간 빨랐습니다.
최종 수정 일시	2023-12-08 16:31
첨부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테디상생플러스 결과보고서.pdf 스테디상생플러스 지도교수 평가서.pdf 스테디상생플러스 출석부.hwp 스테디상생플러스 활동보고서(1~8회차).hwp

<이미지 6: 최종 제출 화면>

이렇게 한 학기 동안의 스테디상생플러스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이 협업을 위해 활용한 노션 사용 내역을 소개하며 이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 'Notion 문서'를 활용한 팀원들 간의 학습 내용 공유 및 활동 과정 기록

저희 팀은 한 학기 동안의 스테디상생플러스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팀원들 간의 학습 진행 상황과 SQLD 학습 내용 정리 및 스테디상생플러스 활동 기록을 위해 노션을 활용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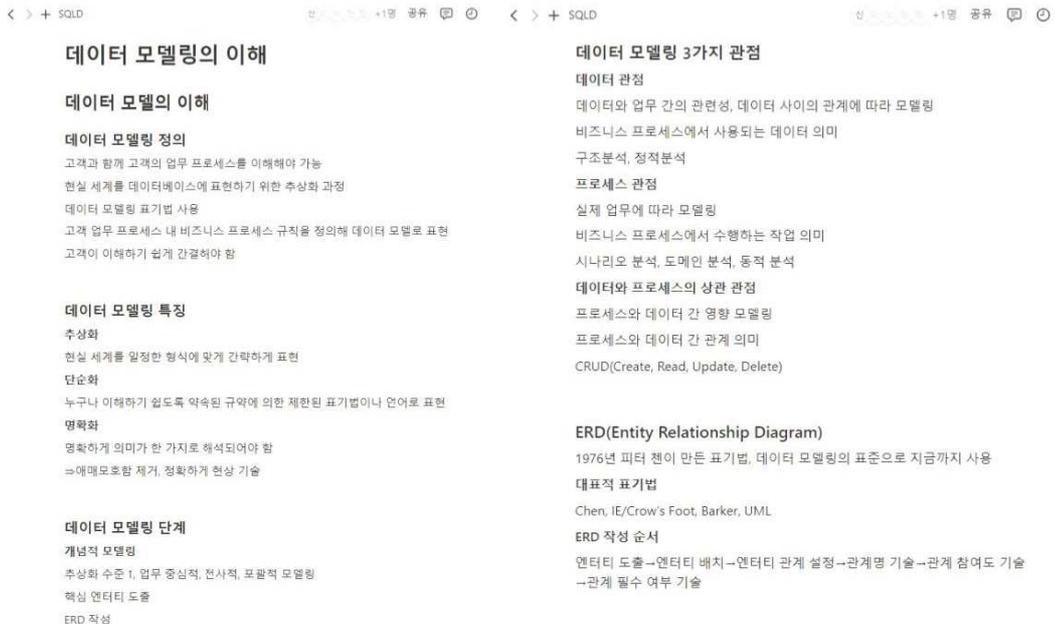
노션은 팀 협업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팀원들과의 협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문서를 공유하고 편집할 수 있어서 매우 효율적이었고, 댓글과 멘션 기능을 통해 팀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일정을 조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노션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는 한 학기 동안의 활동에서 생긴 다양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효과적이게 구성하고 관리하는데 매우 유용하였습니다.

노션을 활용하여 많은 양의 내용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미지 7>과 같이 깔끔하게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지 8>은 <이미지 7>에서 '데이터 모델링의 이해' 부분을 클릭했을 때 이동하는 화면입니다. 이처럼 페이지 간의 링크를 통해 해당 내용으로 이동할 수 있어서 필요

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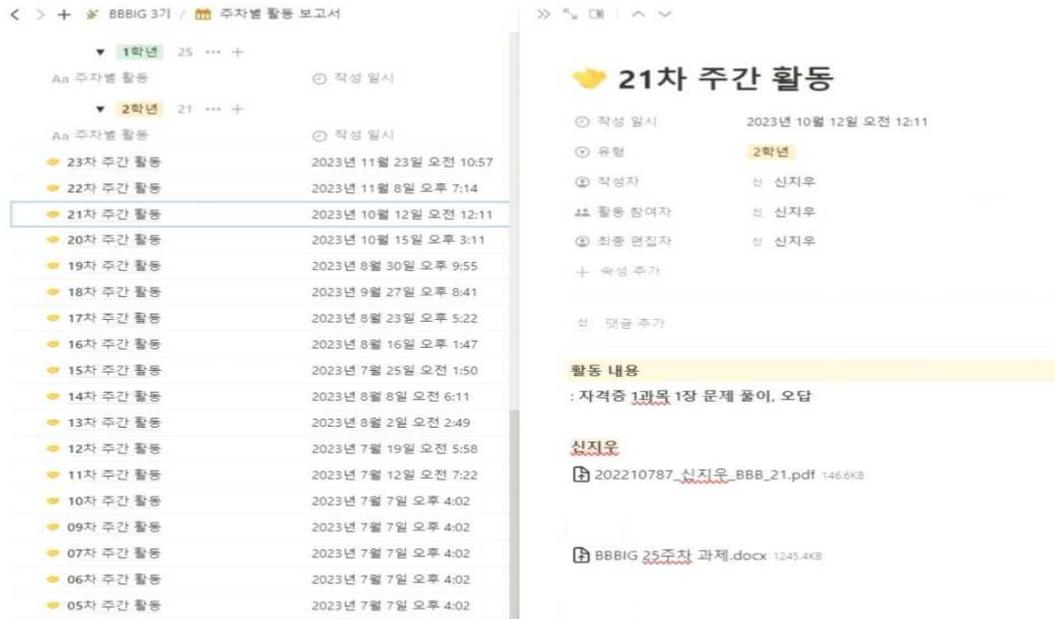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데이터 모델링의 이해 ✓ 데이터 모델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 모델링 정의 데이터 모델링 특징 데이터 모델링 단계 데이터 모델링 3가지 관점 ERD(Entity Relationship Diagram) 3단계 구조 스키마 데이터베이스 3단계 구조 엔터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형과 유형에 따른 분류 발생 시점에 따른 분류 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징 특성에 따른 속성 종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relationship)의 개념 관계의 분류 관계의 표기법 식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별자 개념 식별자 특징 주식별자 특징 키 종류 식별자 분류 주식별자 도출방법 식별자 관계와 비식별자 관계 데이터 모델과 성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능 데이터 모델링 개요 성능 데이터 모델링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규화와 성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규화 개념 이상현상 정규화 단계 정규화 주의사항 반정규화와 성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정규화 개념 반정규화 수행해야 하는 경우 반정규화 절차 반정규화 기법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투명성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방식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장단점 SQL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개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차이 집합연산 관계연산 테이블과 질럼 SQL(Structured Query Language) SQL 문장 종류 트랜잭션(Transaction) SQL 실행 순서 SEL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SELECT문 SELECT 문법 Order by DISTIN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함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NULL 정의 Null 조회 문자 함수 숫자 함수 날짜 함수 Group by <ul style="list-style-type: none"> Group by Having 집계 함수 분기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NVL NVL2 decode Case when rownum, rowid, with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rownum rowid with문
--	---	---

<이미지 7: 노션 문서 작성 - 페이지 링크>



<이미지 8: 노션 문서 작성 - 링크되어 이동한 페이지>

<이미지 9>는 앞서 소개한 <사진 1: 팀원 간 공유하는 문제 풀이 인증> 내용이 담긴 문서를 업로드 한 페이지입니다. 노선을 통해 파일을 쉽게 공유하고 정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증 내용을 따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어 문서를 간략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미지 9: 노선 문서 작성 - 파일 업로드>

5. 스터디상생플러스 활동 참여 소감

글의 시작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자격증 취득에 대해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 스터디상생플러스 활동을 통해 팀원들과 소통하며 관심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공부하고, 그간 미루고 있던 일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공부 자체는 언제나 쉽지 않았지만, 팀원들과 함께 공부하고 성과를 확인 과정은 즐거웠고, 제게 의미있고 뿌듯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혼자서 시작했다면 아마도 시험 합격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혼자서는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거나, 의욕이 넘치는 상태로 시작했지만 중간에 지쳤던 경험을 하신 분들, 협업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도전하고 관심 분야를 심화시키고 싶은 학우분들에게 '스터디상생플러스' 활동을 추천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효과적인 학습 전략

국어교육과 21학번 **선다현**

1) 들어가며

세상에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꾸준히 인정을 받으며 가치를 발하는 것들이 있다. 창작된 지 30~40년이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김광석, 유재하, 김현식 등의 7080 음악, 그리고 외국의 올드팝과 헤아릴 수도 없이 아주 오래전에 세상에 등장한 고전 소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 오늘 내가 소개할 학습 전략들도 마찬가지이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여러 학습 전략들은 현시대의 발달한 미디어나 매체를 사용하는 참신하고 독특한 것들은 아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공부했을 때 한 번쯤은 해봤을,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평범하고 전통적인 전략들이다. 하지만 과거에서부터 꾸준히 이어져 현재까지도 학습 전략들로 사용되며 효과와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받은 것들이다. 지금부터는 내가 사용한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학습 전략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효과적인 학습 전략 6가지

첫 번째, 공부 시작 전 계획을 세우기

학습 전략 첫 번째는 바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나는 월간 학습 계획과 주간 학습계획, 하루 학습계획으로 나누어 총 3가지의 계획을 세우며 학습을 하고 있다. 먼저 월간 학습계획은 한 달 동안 어떤 과목을 얼마만큼 학습하고 싶은지를 생각하여 간략하게 세운다. (예: 0월 학습 목표 1) 작문교육론 본 교재 1장~10장 이론 정리 ...) 월간 학습계획은 한 달 학

습 목표로 주간 학습 계획과 하루 학습계획의 토대가 된다. 주간 학습계획은 월간 학습계획을 바탕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 주당 학습해야 하는 학습량을 계산하여 세운다. (예: 0월 1주 차 학습 목표 1) 작문교육론 본 교재 1강~3강 이론 정리...) 마지막으로 하루 학습계획은 주간 학습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하루 당 학습해야 하는 학습량을 계산하여 세운다. (예: 0월 0일 학습 목표 1) 작문교육론 본 교재 1강 1p~22p 정리...) 단, 하루 학습계획을 세울 때는 추가로 자신의 일정을 고려해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더불어 당일 급하게 해야 할 학습이 생겼을 때나 시험 기간에는 학습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정한다. 공부하며 계획을 세우지 않고 바로 실천으로 옮기는 것을 더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한 후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대로는 월간, 주간 학습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학습하기 전 간략한 계획이라도 세우는 것을 추천한다.

[1월 공부 계획표]

목표: 1) 교육학 하편 마무리 2) 작문교육론 본 교재 1~14강 이론 정리 마무리 3) 고전시가-고전시가 작품론 교재 마무리 4) 입용 문제 풀이 매주 하기 5) 중세국어 구조도 마무리 6) 매주 고전소설 하나 정리하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2 교육학 정리(5.1-5.2) 작문 1강 항가 개관, 서동요, 현화가	3 교육학 정리(5.3) 작문 2강 도술가, 모죽지랑가, 처용가	4 교육학 정리(5.4-5.5) 작문 3강 예성가, 제망매가, 안민가	5 교육학 정리(5.6-5.7) 작문 4강 참기파랑가, 고려속요 개관	6 (나가는 날) 고전 소설 읽기	7 교육학 정리(6.1) 작문 5강+정리 정음사 고전소설 정리
8	9 교육학 정리(6.2) 작문 8강 서경별곡, 사모곡, 쌍화점 중세국어 정리 8강 2023 스티디 입용 문물 정 리	10 가사리, 만전순별사 고전소설 읽기 2023 A 정리	11 교육학 정리(6.3) 작문 9강 경기체가 개관, 한림별곡, 대장부 공성신회야 중세국어 정리 서술어 2023B 풀고 정리	12 교육학 정리(6.4) 작문 10강 면앙정가-덴동어미 화친가 정리(해석까지) 중세국어 정리 16강 2024 A정리	13 작문 11강 고전소설 정리	14 교육학 정리(7.1-2) 농가월령가, 우부가 작문 12강 중세국어 구조도 2024B 정리
15	16 교육학 정리(7.4) 작문 14강 잡가 개관, 유산가 중세국어 구조도 2022 A 풀기	17 * 교육학 정리(7.7-7.8) 작문 구조도 중세국어 구조도 2022 b 가사 정리	18 교육학 정리(8.1-2) 작문 구조도 고전소설 흥문 정리 중세국어 구조도 2021 a	19 교육학 정리(8.3) 독서와 역사의 개념(1강)+2 강 고전소설의 호칭과 범위 중세국어 구조도 2021b	20 (나가는 날)	21 교육학 정리(8.4-6) 독자의 인지적 발달 고전소설 정리 설화와 소설의 관계-설화의 소설화 중세국어 구조도
22	23 교육학 정리(9.2) 독서과정요령 고전소설의 작가중1	24 교육학 정리(9.3) 독서교육론 4강 고전소설의 작가중2 고전소설의 향유와 유통 1	25 교육학 정리(9.4-6) 독서와 텍스트 고전소설의 향유와 유통 1	26 교육학 정리(10.1-2) 독서교육론 5강 고전소설의 향유와 유통 2	27 (나가는 날)	28 교육학 정리(11.1-3) 고전소설 정리 독서교육과정+6강 조선전기 소설관 1
29	30 교육학 정리(11.4-5) 독서교육론 7강 조선전기 소설관 2 고전소설 개관1 마무리	31 교육학 정리(하편 마무리) 독서교육론 8강 고소설의 양식 2				

그림 1. 실제 사용 중인 2024년 1월 학습 계획표 (월간 학습 계획표, 하루 학습 계획표로 구성, 주간 학습 계획표는 생략)

두 번째, 수업은 집중해서, 필기는 항상 꼼꼼히 하기

학습 전략 두 번째는, 수업 필기는 항상 꼼꼼히 하는 것이다. 이는 수업을 놓치지 말고 집중해서 듣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수업시간을 생각해 보면 늘 우리의 선생님, 교수님께서 “나중에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수업시간에 집중해서 들으세요.”, “녹음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집중해서 들으세요.”라고 말씀하시곤 하셨다. 처음에는 이 말이 와닿지 않았고 대학에 와서는 ‘못 들으면 녹음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아마 대부분의 학생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막상 집에 와서 학습할 때 녹음한 내용을 듣지 않았다. 또한 녹음을 믿

할 내용을 선별하고 머릿속으로 구상한 뒤에는 정리를 시작한다. 중요한 부분에는 주로 빨강 볼펜과 노랑 형광펜을 사용한다. 파랑 볼펜으로는 주로 단어의 개념 등을 정리하고 회색 형광펜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한다. 이처럼 학습 내용 정독과 중요 내용 선별 및 구상, 형광펜과 볼펜을 사용한 노트 정리로 나는 나만의 정리 노트를 만들어 효율적인 학습을 하려고 노력한다.

[박태현의 소설] (이상과 함께 1930년대 대표적인 모더니즘 작가) → 후반 전반기에서 리얼리즘+모더니즘의 결합 작가 소개: 1933년 구인회 가입. 광복 후 조선문학가동맹 가입. 한국전쟁 시 월북. 북에서 대학역사소설 <갈고논진정> 발표 / 대표작: '피로'(부제: 어느 우디의 기록)(1933),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1934), <천변풍경>(1936-1937) 등

작품 특징

- 구인회 회원으로 문학작품에 있어서 기교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주장. (장적어록 - 표현, 묘사, 기교. (1934))
- 초기소설 단편소설 '피로', 중편소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등은 모더니즘 소설로 간주
- <천변풍경>은 모더니즘적 요소와 리얼리즘적 요소가 혼합. 과도기적 양상.
- '굴복안'(1939)은 <천변풍경>처럼 세태 묘사주의 전통적인 리얼리즘 소설에 가까운 작품임.
- 초기소설들은 내용보다는 문장 자체의 예술성을 중시
- 오버랩 기법 등 새로운 소설적 기법을 시도.
- 인물의 내면의식 묘사를 중시하는 등 강한 실험정신을 보여줌.
-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과 <천변풍경>은 이야기의 발단과 결말이 클리닉으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소설의 틀과 구체적인 행위의 개념이 나타나지 않음.
- 틀로의 중심 개념인 행위를 해체시키고 주인공이라는 개념을 해체시킴

■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1934) - 모더니즘 결합

줄거리: 주인공 구보는 (별도의) 직업을 갖지 않은 26세의 독신 소설가이다. 그는 단장과 대학 노트를 들고 정오에 집을 나와 결성(서울) 중심가를 정처 없이 배회한다. 다방, 식당, 카페, 경성역 등을 돌으며 스치는 여러 사람들을 관찰하고, 또 과거를 회상하기도 한다. 그런 중에 행복을 갈망하고 고독해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새벽 두 시, 벗과 헤어진 구보는 비로소 밥 늦게까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를 떠올리고, 이제는 장작에 전념하고 어머니의 기대와 같이 결혼도 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특징

- 지식인(소설가)인 주인공 = 식민지 근대화 상상의 전형인 1930년대 경성 거리를 배회, 한편의 노트와 예민한 의식을 지님
- 식민지 수도 경성 거리를 배회하는 산책자의 시선(산책자 모티브)을 통해 근대적 도시 경형의 한국적 수용 양상을 보여줌
- 도시 공간을 떠도는 주인공을 통해 내면화 의식의 공간을 더욱 치밀하게 묘사
- 주인공 의식의 유희성을 보여주기 위해 오버랩 기법을 활용하는 등 기법적인 실험을 함
- 고현학의 과정을 그림 (** 천변풍경 = 고현학의 결과)

■ 천변풍경 (1936-1937) - 중편소설로 발표, 속 천변풍경을 합하여 장편으로 탄생 / 모더니즘-리얼리즘 결합

간략 설명: 천변풍경은 1930년대 경성 현란파에 흐르는 정경현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돈과 생활의 안정이 주는 세속적인 행복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중산층의 인물들, 가난은 숙명이며 돈이 곧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서민층의 인물들, 불건장 인성과 남성의 억압적 지배에 의해 피해를 입은 여인들, 세상의 진실과 허위를 발견하며 성장하는 아이들 등 다양한 인물의 생활상이 파노라마식으로 묘사됨

특징

- 정경현을 중심으로 약 일 년 동안 사계절의 순환을 따라 변화하는 삶의 다양한 삽화들을 연결한 작품
- 1930년대 식민지 도시 경성에 사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 세태, 인정을 예리한 관찰력과 뛰어난 필치로 그려냄
- 현실에 대한 통제적인 인식이 도달하지 못했다는 비판 O(개별화된 인물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서사적 통합력 ↓)
- 자유롭게 인물들의 행상을 배치함으로써 도시적 공간과 인간의 속성을 동시에 파악하려는 작가의 독특한, 새로운 창작 태도와 수법이 드러남
- 세태소설적 요소(일화) / 리얼리즘 소설적 요소(회제) / 모더니즘적 요소(독특한 틀, 삽화적, 주인공의 분산, 영화적 기법

그림 4. 직접 만든 '나만의 정리 노트'(타자 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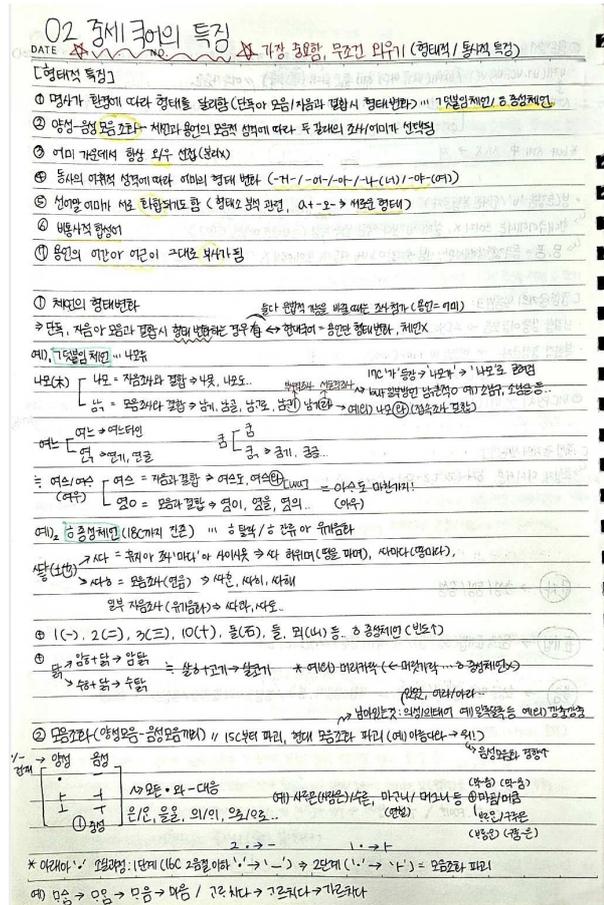


그림 5. 직접 만든 '나만의 정리 노트'(손 글씨 버전)

네 번째, 학습 내용을 한 장으로 요약한 핵심 키워드 구조도 만들기

학습 전략 네 번째는 학습 내용을 한 장으로 요약한 핵심 키워드 구조도를 만들라는 것이다. '핵심 키워드 구조도'가 무엇인지 잘 느낌이 오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 '핵심 키워드 구조도'란 한 장의 종이 속에 학습한 내용 속 핵심 단어들(핵심 키워드)만을 담아 구조화한 것이다. 세 번째 학습 전략에 있는 '나만의 정리 노트'보다 더욱 간략한 형태이다. 학습하며 '나만의 정리 노트'를 만들어 핵심 내용을 선별해 복습하긴 했지만, 학습 내용이 명확하게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예를 들어 '현대 시의 표현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고 했을 때 은유, 반어, 역설 등의 여러 표현 방법과 각 표현 방법들의 하위 이론이 뒤섞여 혼란스러웠던 것이다. 따

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심 키워드 구조도’를 만들어 각 학습 내용별 암기하고 학습해야 할 내용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구조화, 정리할 수 있었다. 이후 확실히 더 탄력적이고 체계 잡힌 공부를 할 수 있었다. 공부하면서 조금 더 구조화된, 정리된 학습을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해당 전략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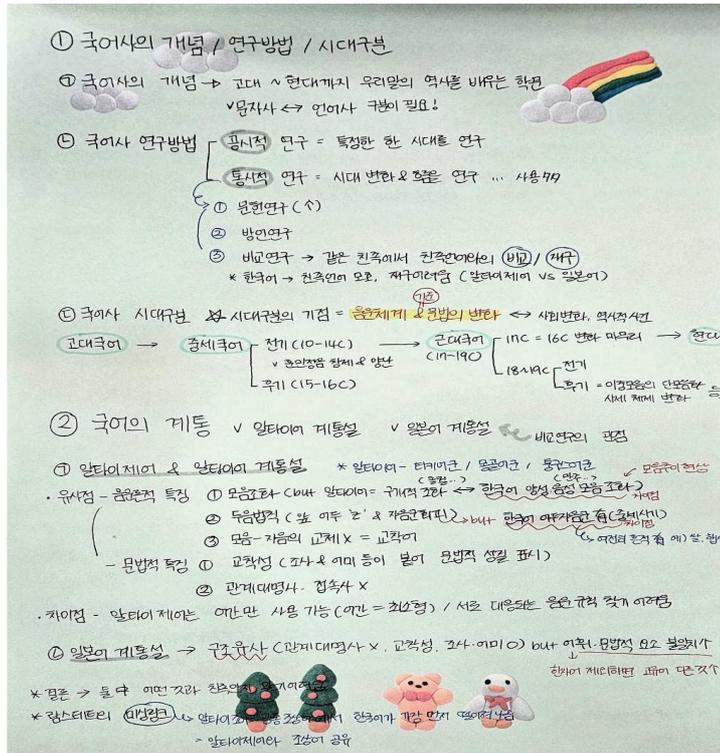


그림 6. 직접 만든 '핵심 키워드 구조도'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회독, 반복 학습하기

다섯 번째 학습 전략은 회독과 반복 학습이다. 사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특정한 내용을 계속해서 공부하는 반복 학습과 회독을 정말 싫어했다. 같은 내용을 보는 것이 굉장히 지루했기에 나는 반복 학습을 회피했었다. 하지만 계속 학습을 하며 다 회독을 하는 것, 반복 학습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 번 보면서 볼 때마다 집중력과 집중해서 보는 부분이 달라지기에 우리는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익힐 수 있는 것은 물론, 그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부분까지 발견하고 습득하며 완벽한 학습을 할 수 있다. 나는 학습 내용을 정리한 구조도와 노트에 형광펜이나 글씨를 쓰며 반복 학습을 하는 편이다. 또한 시험을 봐야 하는 상황에서 기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기출 문제 또한 여러 번 풀어보거나 틀린 문제는 오답 노트를 보는 등의 반복 학습을 하고 있다. 학습했던,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다시 보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만큼 좋은 성과를 주는 효과적인 학습도 없다. 따라서 학습을 할 때 내용을 다시 보는 것이 힘들어도 마음을 굳게 먹고 다 회독, 반복 학습을 하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스터디를 활용하기

여섯 번째 학습 전략은 스터디를 활용하라는 것이다. 혼자 학습했을 때 보다 협동 학습, ‘스터디’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상당하다. 현재 나는 학습 목표가 비슷한 친구들과 모여 임용 문제를 함께 분석하고 풀어보는 임용 문제 풀이 스터디, 일주일에 5시간 이상 교육학 공부를 목표로 하며 이론을 정리하는 교육학 스터디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혼자 학습하면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해결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새롭게 깨닫기도 하며 성장하는 학습을 하고 있다. 또한 서로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며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도 얻고 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스터디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면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는 일종의 스터디 프로그램인 ‘상명튜터링’이나 ‘상생 플러스’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나는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종의 스터디 프로그램인 ‘상명 튜터링’에 이번 3학년 2학기 ‘국어 교과 논리 및 논술’ 과목의 튜터로 참여하여 의미있는 학습을 할 수 있었다. 가장 좋았던 점은 과목 이론을 튜티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 다시 반복 학습하면서 오래전 학습했던 내용을 다시 익히고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론을 학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튜티들과 함께 관련 문제를 풀어보거나 직접 교육과정, 교과서를 분석하며 전공 이론에 대한 심화 학습을 할 수 있었던 점도 의미 있었다. 더불어 튜티들에게 ‘튜터링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좋은 튜터링 진행해 주어서 고맙워요.’와 같은 감사 인사를 들으며 자신감과 학습에 대한 효능감 또한 높일 수 있었다. 이처럼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협동 학습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학습 효과는 더욱 다양하다. 따라서 자체 제작 스터디를 만들거나 학교의 다양한 스터디 프로그램 (상명 튜터링, 상생플러스 등)에 참여하는 학습 전략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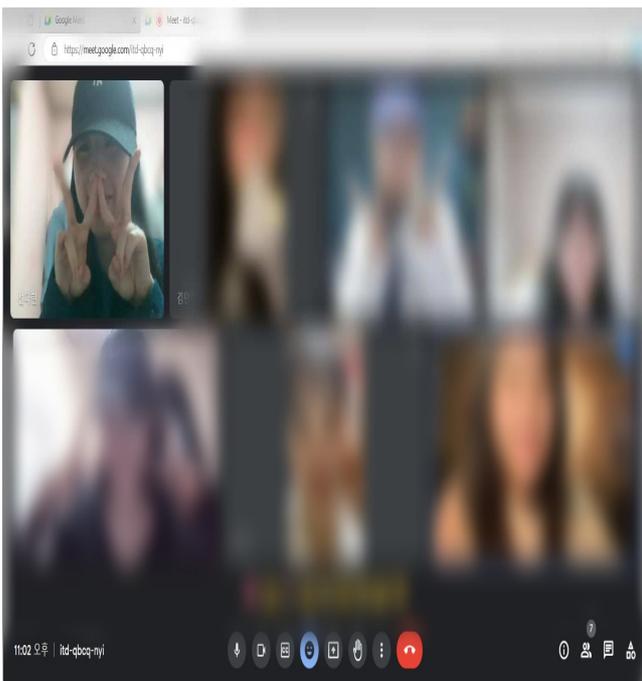


그림 7. 상명 튜터링 활동 사진(나머지 튜티들 불러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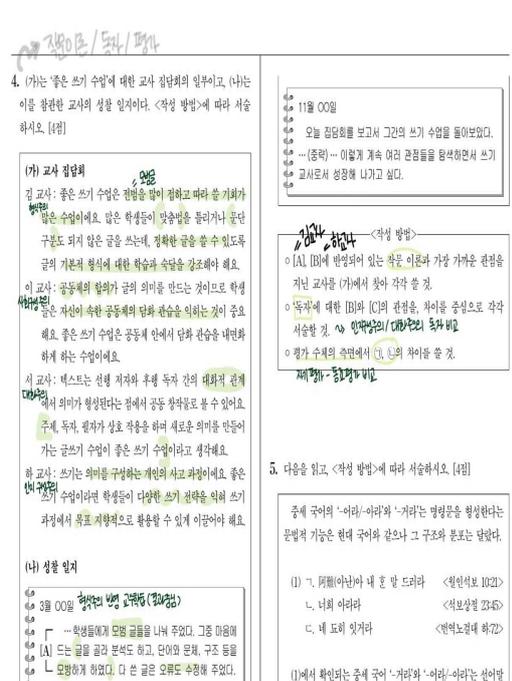


그림 8. 튜터링 활동에서 풀었던 작문 임용 문제

3) 마무리 하며

지금까지 내가 학습을 하며 사용한 오랜 시간이 지나도 가장 효과적인 학습 전략들을 소개해 보았다. 나는 이들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꾸준히, 성실히 공부한 결과 눈에 띄는 성적 향상을 이루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들어오는 말에서 말했듯 이 방법들은 예전부터 사용된,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지극히 평범한 학습 전략들이다. 모두가 아는 전략들이지만 역설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기, 매일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무언가를 지속해서 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위의 학습 전략들을 꾸준히 실천하며 학습한다면 분명 모두 꿈꾸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열심히 학습하며 달리는 모든 학생들을 응원하며, 오늘 나의 학습 전략을 담은 글이 작은 도움이 되어 모두 바라는 꿈을 이루길 진심으로 소망한다.

No	학년도	학기	신청학점	취득학점	평점계	평점평균	백분율
1	2023	2학기	21	21	94.50	4.50	100.00
2	2023	1학기	20	20	90.00	4.50	100.00
3	2022	2학기	18	18	78.00	4.33	97.30
4	2022	1학기	19	21	80.50	4.23	96.30
5	2021	2학기	20	20	84.00	4.20	96.00
6	2021	하계 계절수업	0	1	0.00	0.00	54.00
7	2021	1학기	16	18	66.00	4.12	95.20

그림 9. 꾸준히 학습 전략 실천 후 향상된 성적

챗지피티 영어 선생님

컴퓨터과학과 21학번 이다원

- 본 학습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자가 제작한 동영상이 교수학습개발센터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사오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1. 소개

영어를 독학으로 공부하기엔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 내용에선 직접 연구하고 실제 영어 학습 시 활용이 가능한 챗지피티 영어 학습법을 소개합니다.

2. ChatGPT 단어시험 자동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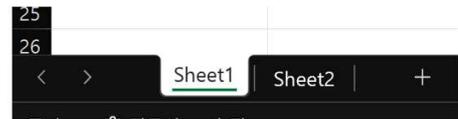
- 영어단어 학습 시, 단어 암기 후 확인 및 테스트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 하지만 스스로 단어 시험지를 만드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 비효율적입니다.
- 챗지피티와 엑셀을 이용한 단어시험을 자동화하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STEP 1: 단어 데이터를 엑셀에 다음과 같이 준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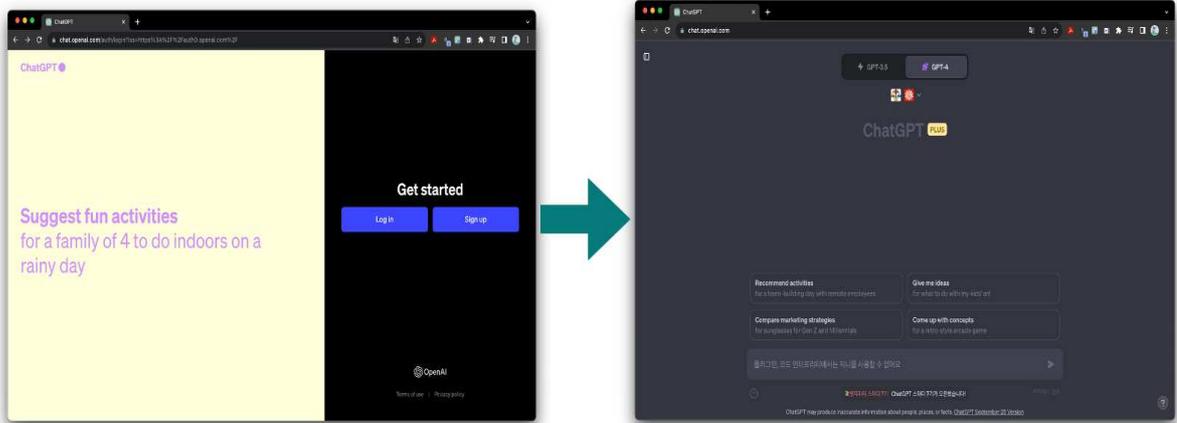
2	overhead	머리 위에, (하늘) 높이
3	utter	완전한, 전적인; 말하다; (소리 등을) 내다
4	representation	표시, 표현; 대리, 대변, 대표
5	recycle	재활용하다, 재생하다
6	interference	간섭, 방해
7	productive	생산적인, 결실이 많은; 비옥한
8	overwhelming	압도적인
9	income	수입, 소득
10	foresee	예견[예지]하다
11	outdo	...보다 뛰어나다, ...을 능가하다
12	revival	부활, 되살아남; 재상영, 재상연
13	international	국제적인, 국가 간의
14	indoor	실내의
15	interaction	상호 작용, 상호 영향
16	overwhelm	압도하다; 당황하게 하다
17	overwork	과로하다[시키다]; 과로
18	infection	감염; 오염
19	product	생산물, 제품
20	produce	생산[제조]하다; 농산물
21		

- A열 : 영단어
- B열 : 뜻
- 시트 2개 생성



STEP 2: ChatGPT 사이트 접속(Chrome 환경 사용)

- 구글 아이디를 통해 간편하게 ChatGPT 가입이 가능합니다.



STEP 3: VBA 코드 생성

- 엑셀에서 단어시험을 자동화하기 위한 코드를 생성합니다.
- 프롬프트 예시
- 영어로 질문을 할 경우, 답변의 질이 향상됩니다.
- (본 PPT는 이해를 돕기 위해 한글로 표기함)
-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답변의 질이 향상됩니다.

엑셀에서 랜덤으로 단어시험을 내는 VBA 코드를 만들어주세요.

요청 사항:

- sheet1 - 시험을 위한 단어 데이터 열1: 영어단어, 열2: 뜻(한국어)
- sheet2 - 단어시험을 내는 공간
- 시험형식: 영단어 → 한글
- 시험문제 수 조절 가능하게 해주세요
- 채점하기 버튼을 생성하여 문제를 채점하기(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아도 포함하면 맞게)
- 문제생성 버튼을 생성해 주세요.

요청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VBA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

vba
Sub CreateRandomTest()
    Dim LastRow As Long
    Dim RandRow As Long
    Dim i As Integer
    Dim TestSize As Integer
    Dim Temp As String

```



```

Microsoft Visual Basic for Applications - Module1 (코드)
(일반)
Dim LastRow As Long
Dim RandRow As Long
Dim i As Integer
Dim TestSize As Integer
Dim Temp As String

' 시험 문제 수 설정
TestSize = InputBox("몇 개의 단어로 시험을 출제하시겠습니까?", "시험 문제 수 입력", 10)

' 데이터의 범위를 설정합니다.
LastRow = ThisWorkbook.Sheets("Sheet1").Cells(ThisWorkbook.Sheets("Sheet1").Rows.Count, "A").End(xlUp).Row

' 랜덤 단어 선택
For i = 1 To TestSize
    RandRow = Int(Rnd * (LastRow - 1) + 1)
    ThisWorkbook.Sheets("Sheet1").Cells(i, 1).Value = ThisWorkbook.Sheets("Sheet1").Cells(RandRow, 1).Value
    ThisWorkbook.Sheets("Sheet2").Cells(i, 3).Value = ThisWorkbook.Sheets("Sheet1").Cells(RandRow, 2).Value
Next i

' 문제 생성 버튼 추가
With ThisWorkbook.Sheets("Sheet2").Buttons.Add(200, 15, 100, 30)
    .Caption = "문제 생성"
    .Action = "CreateRandomTest"
    .CancelKey = xlDefault
End With

' 채점하기 버튼 추가
With ThisWorkbook.Sheets("Sheet2").Buttons.Add(400, 15, 100, 30)
    .Caption = "답에 비해 문제 포함"
    .Action = "CheckAnswers"
    .CancelKey = xlDefault
End With

Sub CheckAnswers()
    Dim i As Integer
    Dim LastRow As Long
    Dim UserAnswer As String
    Dim CorrectAnswer As String

    LastRow = ThisWorkbook.Sheets("Sheet2").Cells(ThisWorkbook.Sheets("Sheet2").Rows.Count, "A").End(xlUp).Row

    For i = 1 To LastRow
        UserAnswer = Trim(ThisWorkbook.Sheets("Sheet2").Cells(i, 2).Value)
        CorrectAnswer = ThisWorkbook.Sheets("Sheet2").Cells(i, 3).Value

        ' 답의 끝자락에 공백이 있으면 제거하여 보아야 함
        UserAnswer = Trim(UserAnswer)
        CorrectAnswer = Trim(CorrectAnswer)

        ' 사용자의 답이 정답과 일치하는지 검증
        If UserAnswer = CorrectAnswer Then
            ThisWorkbook.Sheets("Sheet2").Cells(i, 4).Value = "정답"
        Else
            ThisWorkbook.Sheets("Sheet2").Cells(i, 4).Value = "오답"
        End If
    Next i
End Sub

```

STEP 4: VBA 코드 엑셀에 적용

- 엑셀에서 Alt + F11을 눌러 VBA 편집기를 엽니다.
- Insert > Module을 선택하여 새 모듈을 추가합니다.
- VBA 코드를 붙여 넣습니다.

outlet	(가스, 감정 등의) 배출구, 배출 방법; 상징
overhead	머리 위에, (하늘) 높이
utter	완전한, 전적인, 말한다; (소리 등을) 낸다
representation	표시, 표현, 대리, 양면, 대표
recycle	재활용하다, 재생하다
interference	간섭, 방해
productive	생산적인, 결실이 많은; 비옥한
overwhelming	압도적임
income	수입, 소득
foresee	예견(예지)하다
outdo	...보다 뛰어나다, ...을 능가하다
revival	부활, 되살아남; 재생명, 재생연
international	국제적인, 국가 간의
indoor	실내의
interaction	상호 작용, 상호 영향
overwhelm	압도하다; 당황하게 하다
overwork	과로하다(시키기); 과로
infection	감염, 오염
product	생산품, 제품
produce	생산(제)하다; 농산물



Microsoft Visual Basic for Applications - 통합 문서1

VBAProject (통합 문서1) > 모듈 > Module1

```

Sub CreateRandomTest()
    Dim LastRow As Long
    Dim RandRow As Long
    Dim i As Integer
    Dim TestSize As Integer
    Dim Temp As String

    ' 시험 문제 수 설정
    TestSize = InputBox("몇 개의 단어로 시험을 출제하시겠습니까?", "시험 문제 수 입력", 10)

    ' 데이터의 범위를 설정합니다.
    LastRow = ThisWorkbook.Sheets("Sheet1").Cells(ThisWorkbook.Sheets("Sheet1").Rows.Count, "A").End(xlUp).Row

    ' 랜덤 단어 선택
    For i = 1 To TestSize
        RandRow = Int(Rnd * (LastRow - 1) + 1)
        ThisWorkbook.Sheets("Sheet1").Cells(i, 1).Value = ThisWorkbook.Sheets("Sheet1").Cells(RandRow, 1).Value
        ThisWorkbook.Sheets("Sheet2").Cells(i, 3).Value = ThisWorkbook.Sheets("Sheet1").Cells(RandRow, 2).Value
    Next i

    ' 문제 생성 버튼 추가
    With ThisWorkbook.Sheets("Sheet2").Buttons.Add(200, 15, 100, 30)
        .Caption = "문제 생성"
        .Action = "CreateRandomTest"
        .CancelKey = xlDefault
    End With

    ' 채점하기 버튼 추가
    With ThisWorkbook.Sheets("Sheet2").Buttons.Add(400, 15, 100, 30)
        .Caption = "답에 비해 문제 포함"
        .Action = "CheckAnswers"
        .CancelKey = xlDefault
    End With

Sub CheckAnswers()
    Dim i As Integer
    Dim LastRow As Long
    Dim UserAnswer As String
    Dim CorrectAnswer As String

    LastRow = ThisWorkbook.Sheets("Sheet2").Cells(ThisWorkbook.Sheets("Sheet2").Rows.Count, "A").End(xlUp).Row

    For i = 1 To LastRow
        UserAnswer = Trim(ThisWorkbook.Sheets("Sheet2").Cells(i, 2).Value)
        CorrectAnswer = ThisWorkbook.Sheets("Sheet2").Cells(i, 3).Value

        ' 답의 끝자락에 공백이 있으면 제거하여 보아야 함
        UserAnswer = Trim(UserAnswer)
        CorrectAnswer = Trim(CorrectAns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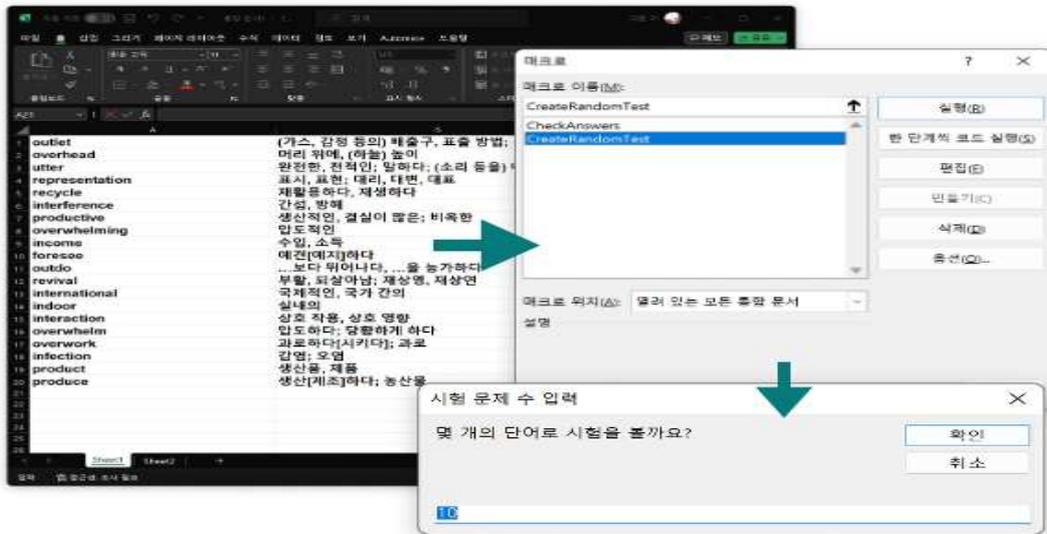
        ' 사용자의 답이 정답과 일치하는지 검증
        If UserAnswer = CorrectAnswer Then
            ThisWorkbook.Sheets("Sheet2").Cells(i, 4).Value = "정답"
        Else
            ThisWorkbook.Sheets("Sheet2").Cells(i, 4).Value = "오답"
        End If
    Next i
End Sub

```

STEP5: VBA 코드 실행

- 시험 문제 생성:
- 엑셀에서 Alt + F8을 눌러 '매크로 실행' 창을 엽니다.
- CreateRandomTest를 선택하고 '실행'을 클릭합니다.

- 시험 문제 수를 입력합니다.
- Sheet2에 랜덤으로 선택된 n개가 표시됩니다.
- 채점하기 과정:
- 사용자는 Sheet2의 B열에 정답을 입력합니다.
- ‘채점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D열에 ‘정답’ 또는 ‘오답’으로 표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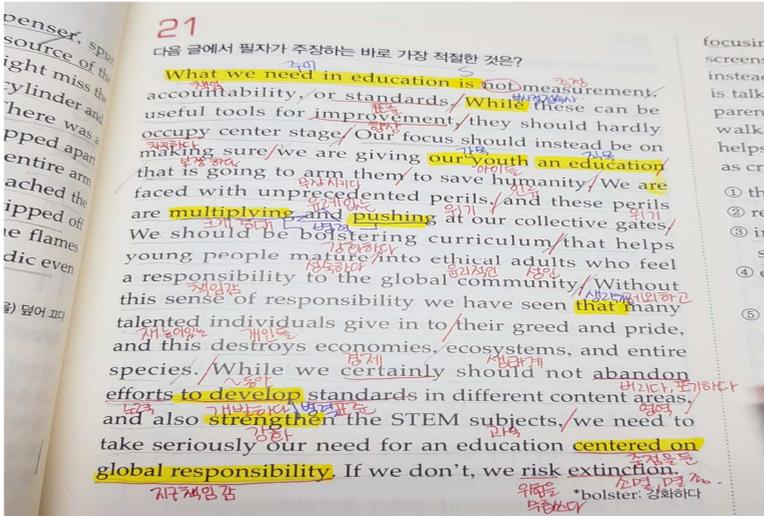
STEP6: 결과

- 문제 수 입력 후 단어시험 자동 생성
- B열에 답을 입력하고 ‘채점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채점이 됩니다.

A	B	C	D	E	F	G	H	I
indoor	실내의	실내의	정답					
outdo	보다 뛰어나다	...보다 뛰어나다, ...을 능가하다	정답	문제 생성				채점하기
revival	모름	부활, 되살아남; 재생영, 재생연	오답					
interference		간섭, 방해	오답					
interferenc	간섭	간섭, 방해	정답					
interaction		상호 작용, 상호 영향	오답					
outlet		(가스, 감정 등의) 배출구, 표출 방법; 상점	오답					
interaction		상호 작용, 상호 영향	오답					
overwhelm		압도하다; 당황하게 하다	오답					
indoor		실내의	오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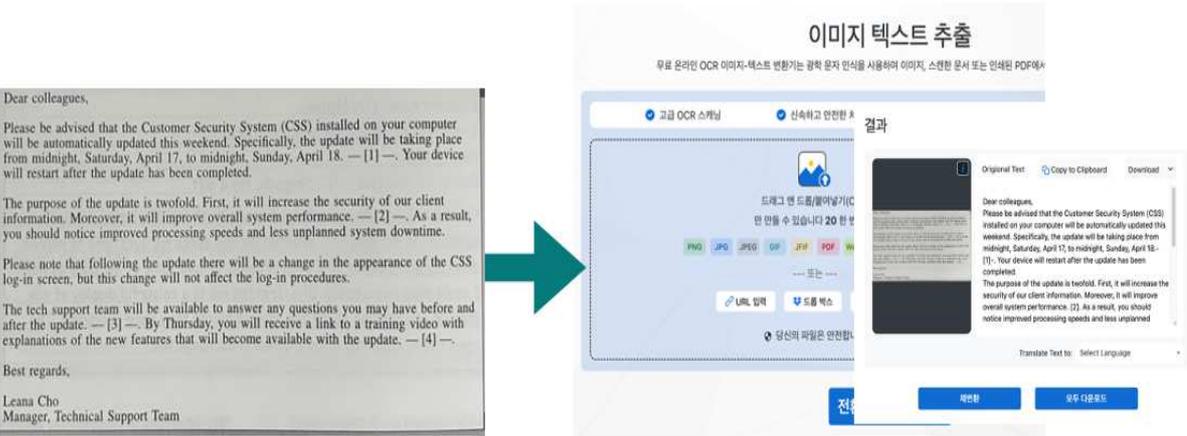
3. ChatGPT로 초고속 나만의 단어장

- 기초 없이 영어 독해를 하면 모르는 단어 투성일 것입니다.
- 그렇게 필기 열심히 했던만 다음 장으로 넘기면 사라지는 나의 기억들..
- 그렇다고 따로 단어장을 만들자니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 이 모든 과정들은 제가 처음 영어를 공부할 때 겪었던 고민입니다.
- 그 부분을 단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STEP 1: 영어지문 촬영 및 OCR 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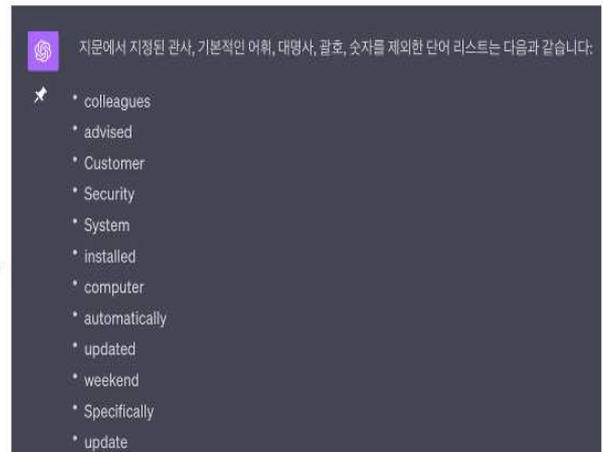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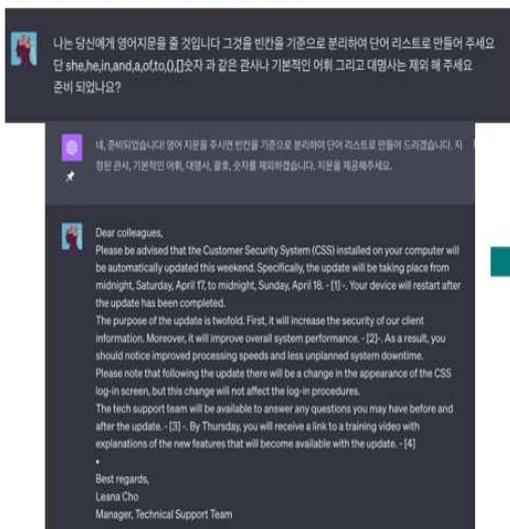
- 모르는 단어가 많은 지문을 촬영합니다.
- OCR 변환 사이트를 통해 촬영된 지문을 텍스트로 변환합니다.
- 본 PPT에서는 (<https://www.cardscanner.co/>) 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 변환된 텍스트를 복사합니다.



STEP 2: ChatGPT를 통한 지문 속 단어 분리

- 챗지피티에 해당 예시 프롬프트를 입력합니다.
- 영어로 질문할 경우, 답변의 질이 향상됩니다.
-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답변의 질이 향상됩니다.

아래와 같이 입력 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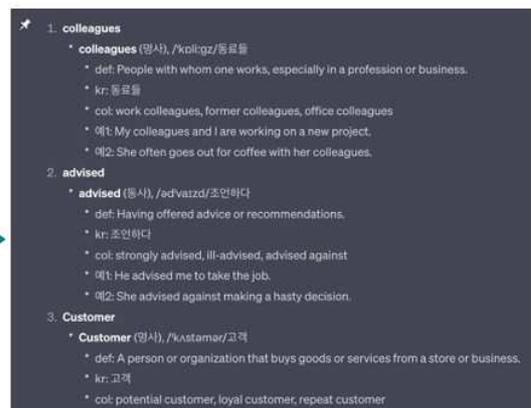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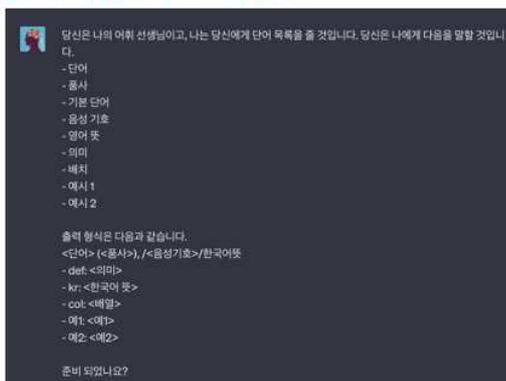


• 간단하게 영어지문 속 영단어들을 추출!!

STEP 3: 이제 나만의 고품질 단어장을 만들어 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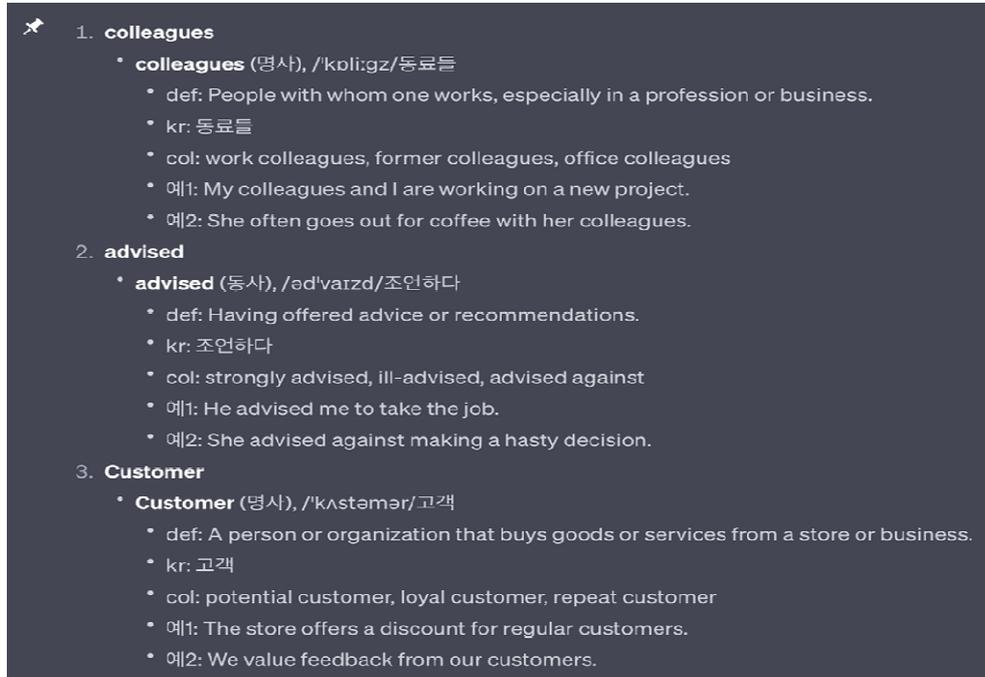
- 챗지피티 해당 예시 프롬프트 입력
- 이전 과정에서 추출한 단어 리스트를 입력해 주세요.
- 예시까지 포함된 나만의 단어장이 생성됩니다.
- Notion 등에 복사해서 언제든 수정 또는 추가가 가능한 나만의 단어장을 만들어 보세요!

아래와 같이 입력 해 보세요!



STEP 4: 결과물

- 언제든 수정이나 추가가 가능한 나만의 고품질 단어장!
- 여러분도 함께 만들어 보세요.



1. **colleagues**

- **colleagues** (명사), /kəli:gz/동료들
- def: People with whom one works, especially in a profession or business.
- kr: 동료들
- col: work colleagues, former colleagues, office colleagues
- 예1: My colleagues and I are working on a new project.
- 예2: She often goes out for coffee with her colleagues.

2. **advised**

- **advised** (동사), /əd'varzd/조언하다
- def: Having offered advice or recommendations.
- kr: 조언하다
- col: strongly advised, ill-advised, advised against
- 예1: He advised me to take the job.
- 예2: She advised against making a hasty decision.

3. **Customer**

- **Customer** (명사), /'kʌstəmə/고객
- def: A person or organization that buys goods or services from a store or business.
- kr: 고객
- col: potential customer, loyal customer, repeat customer
- 예1: The store offers a discount for regular customers.
- 예2: We value feedback from our customers.

4. ChatGPT로 회화 연습

- 영어 회화 연습을 하고 싶지만, 주변에 함께 연습할 사람이 없어요...
- 그렇다고 회화 학원에 다니자니 비용이 부담!
- 언제든 가볍게 대화 연습 할 수 없을까요?
- 그 부분을 단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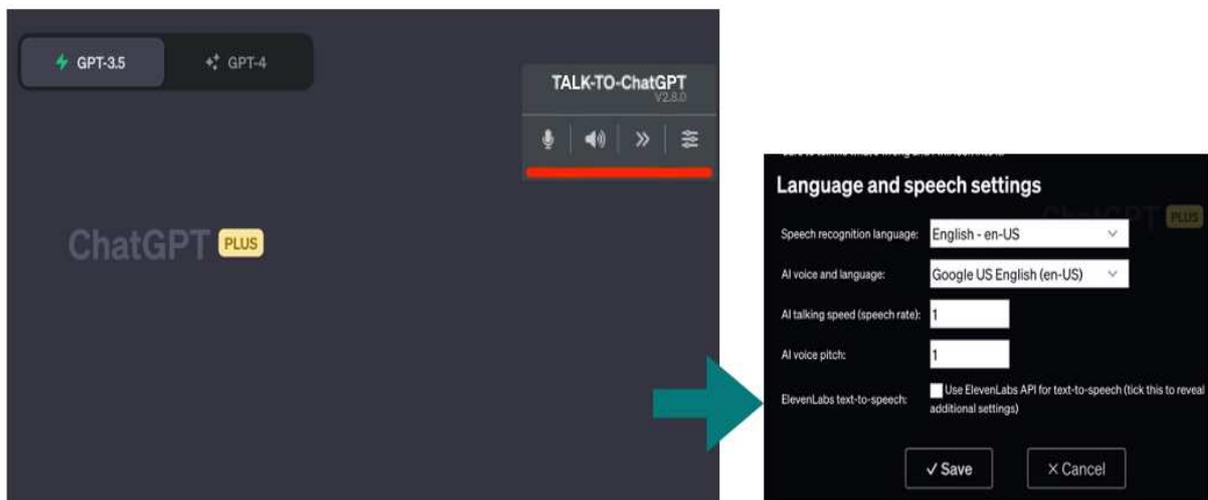
STEP 1: 'Talk-to-ChatGPT' 설치

- 크롬 웹 스토어에서 'Talk-to-ChatGPT' 확장프로그램을 설치 합니다.
- 'Talk-to-ChatGPT'는 챗지피티에 마이크 사운드를 텍스트로 변환하여 입력해 주는 것을 도와주는 확장프로그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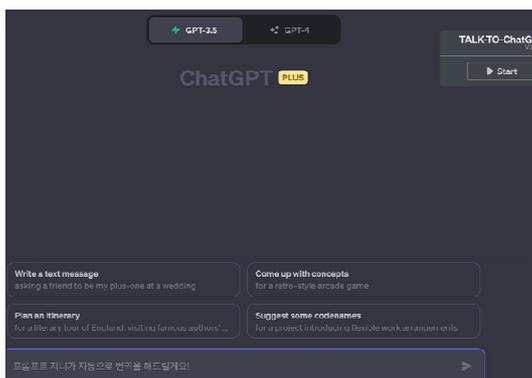
STEP 2: ‘Talk-to-ChatGPT’ 사용법

- 프로그램 설치 후, 지피티 화면을 새로고침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 Start 버튼을 누르고 설명 화면에 진입합니다.
- 오른쪽 사진처럼 영어 회화를 위한 Language를 설정합니다.
- AI talking speed를 통해 알맞은 속도로 변경해 줍니다.
- Input 기능은 빨간색 게이지 상태일 때 말하면 텍스트로 변환되어 챗지피티에 입력됩니다.
- Output 기능은 챗지피티의 답변이 소리로 출력됩니다.



STEP 3: ‘Talk-to-ChatGPT’ 사용해 보기

- 알맞은 프롬프트를 입력 후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 그냥 대화를 시작하면 챗지피티는 긴 답변을 하므로 대화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챗지피티 앱에 회화 기능이 추가 되었지만 기존 텍스트를 동시에 볼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텍스트와 음성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예문

- **프롬프트 1.** Can you help me practice my English with a role play?
• 역할극 하면서 내가 영어 연습할 수 있게 도와 줄래?
- **프롬프트 2.** We can practice a conversation for “상황”.
• (상황 예시: a job interview / a movie date / a birthday party)
- **프롬프트 3.** We can practice a conversation for “상황”. + But please don't give me the full dialogue all at once. Say one sentence and wait for my response.
• 오기 ... 한 상황에 대해서 대화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아. 근데 한 번에 모든 대화문을 쫓진 말고 한 문장만 말한 다음 내 대답을 기다려 줘.
- **프롬프트 4.** Can you write me five sets of dialogues between two people who + “상황”
• 두 사람이 ... 한 상황에 대한 대화문을 다섯 개 써 줄래?

5. 마무리

- ChatGPT를 활용하여 어휘, 독해, 회화를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보다 더 창의적인 활용 사례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상명튜터링 200퍼센트 활용하기

경영학부 21학번 **홍재영**

상명튜터링 참가 사유

나는 현재 경영학부 3학년을 마쳤다. 그동안 경영학부 전공을 하며 수업을 들은 결과,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다가온 과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과목도 있었다. 내 경우에는 ‘경영정보시스템’ 교과목이 그러했고, 동기들도 이 수업이 경영학을 떠올렸을 때 잘 연상이 되지 않는 ‘정보시스템’이라는 낯선 주제를 다룬다는 사실에 긴장된다고 언급하곤 했다. 그러나 경영정보시스템 교과목을 수강하며 경영학을 배우는 데에 있어 정보시스템은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고, 나아가 경영학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어디든 정보시스템을 다루지 않는 분야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학습해보지 못한 채 이토록 중요한 과목을 포기해버리는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때 접했던 프로그램이 ‘상명튜터링’으로, 이 프로그램은 상명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과목을 선수 수강한 전공생으로써 학습법을 알려주고 학습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 더 잘 알듯이, 직접 이 과목을 듣고 학습해본 선 경험자으로써 본 과목을 공부하는 더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을 통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 본 후기를 통해 상명튜터링을 준비하는 튜터에게도, 튜터에게도 튜터링을 진행하는 데에 좋은 가이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글을 시작해보려 한다.

상명튜터링 팀 모집

내가 진행했던 상명튜터링 팀은 ‘SIT(Sangmyung Information Tutoring)’로, 경영학부 학생이 대부분이지만 경영학을 복수전공하는 타전공 학생도 튜터링에 참여했다.

팀 모집은 학교 커뮤니티로 진행했으며, 신청자를 모집한 후 튜터링 일정을 조율하면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 번거로우므로 미리 시간을 지정해 이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신청자를 모집하는 것을 추천한다. 학교 커뮤니티는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검색이 용이하도록

과목의 전체 이름과 함께 약어로 불리는 제목이 있다면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다. 신청자가 댓글을 달면 쪽지로 확인 후 연락처를 받은 뒤, 단체 카톡방에 초대해 공지사항을 안내한다. 튜터링을 체계적인 체제로 진행하는 것은 튜터링 과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여 튜터와 튜티 모두 최대한의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제부터 최대한의 튜터링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사용한 팁을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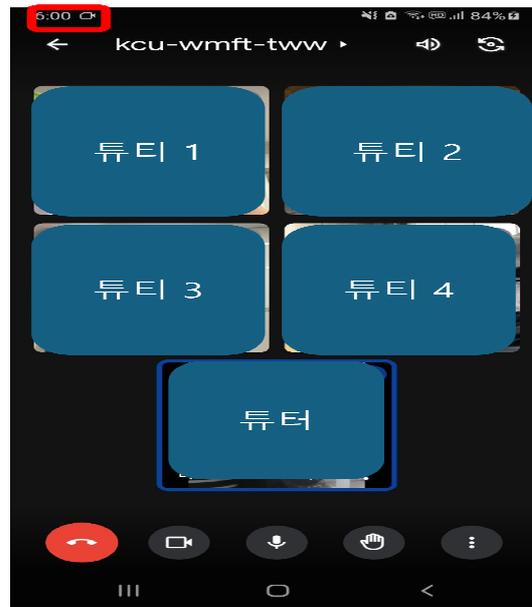


(그림 1 - 학교 커뮤니티를 통한 튜티 모집)

비대면 튜터링

튜터링은 비대면으로 진행이 가능한데, 이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보다 다채로운 튜터링을 진행할 수 있다. 내가 대면 튜터링이 아닌 비대면 튜터링을 선택한 이유는 접속할 시간만 있으면 즉시 참여가 가능하므로 지각 방지에 용이하고, 장소 대관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으며, 실시간으로 수업 자료를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였다.

튜터링을 진행할 경우 튜터링 시작과 종료 시 반드시 시간이 보이도록 인증 사진을 촬영해야 하는데, 비대면 튜터링을 진행할 경우 촬영을 별도로 준비할 필요 없이 시간이 보이도록 캡처만 하면 되는 것도 큰 장점이다. 또한 튜터로써 튜터링에 참여하고 싶은데 발표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도 비대면 어플을 이용하면 발표의 부담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큰 장점도 있다. 비대면 튜터링에 가장 추천하는 어플은 '구글 미즈'인데,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만 하고 url로 공유해 자유롭게 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한다.



(그림 2 - 구글 미츠를 통한 비대면 튜터링)

출결 관리

튜터링은 교내 공식 학습 프로그램인 만큼 튜티들의 출결 관리에 힘써야 한다. 튜티들이 7회 이상 지각하지 않고 온전히 참여해야 수료 인정이 되는 만큼 결석과 지각을 꼭 방지해야 한다. 이에 지각을 방지하기 위해 사진과 같이 튜터링 시작 1시간 30분 전 알림톡을 보내고, 튜터링 시작 10분 전에 미팅 링크를 전송해 미리 입장하여 출석 체크를 바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지각이나 결석이 예정된다면 튜터링 사전에 미리 연락을 요하고, 결석 시 인당 2회까지 과제 출석을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한다. 이와 같이 철저히 출결 관리에 힘쓴 것과 더불어 튜티들이 협조해준 결과, 튜터링 활동이 진행되는 8회 내내 지각자와 결석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튜터 성명		홍재영	팀 명	SIT							
출석부											
순번	이름	학과	회차 (출석:O, 결석:X, 과제를대체:O과제)								
			1	2	3	4	5	6	7	8	
1	홍재영	경영학부	0	0	0	0	0	0	0	0	0
2			0	0	0	0	0	0	0	0	0
3			0	0	0	0	0	0	0	0	0
4			0	0	0	0	0	0	0	0	0
5			0	0	0	0	0	0	0	0	0

(그림 3 - SIT팀 튜터링 출석부)

튜터링 수업 구성

튜터링을 진행할 때 튜터링의 큰 뼈대를 ‘개념 설명’과 ‘기출문제 풀이’로 나누어 진행했다. 튜터링 시작 기간으로부터 3주 뒤가 중간고사 기간이었으므로, 총 8회차의 튜터링을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중간고사 이전에 2회차, 중간고사 이후에 6회차로 배정했다. 시험 범위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각각 1~6단원, 7~12단원이 범위이므로 중간고사 이전의 2회차 튜터링에는 한 번에 3단원씩 개념을 요약 정리하는 데에 집중했다. 중간고사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여유로워져 1시간에 1과목씩 집중해서 튜터링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 기간에는 총 수업시간 2시간 중 1시간 동안 개념을 설명하고, 1시간 동안 해당 단원의 기출문제를 분류해 튜터들에게 풀어볼 시간을 제공한 뒤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했다.

상명튜터링 결과보고서

튜터 설명	총재명	팀명	SIT(Sangmyung Information Tutoring)
소속	학과 : 경영학부	학년 :	학년 : 3
튜터링 과목	경영정보시스템		
참여자(튜터) 인원	4명 불참횟수: 0 명 0 회		
총활동 시간 및 횟수	2023년 10 월 4 일 ~ 12월 6 일 (총 8 회, 16 시간)		
튜터링 내용			
1회	교재 1, 2, 3과 (경영정보시스템의 중요성,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정보시스템, 조직 전략/정보시스템/경쟁우위) 개념 설명 및 질의응답		
2회	교재 4, 5, 6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처리, 데이터 통신과 클라우드) 개념 설명 및 질의응답		
3회	교재 7과 (조직과 정보시스템) 개념 설명, 기출문제 해설 및 질의응답		
4회	교재 8과 (소셜미디어 정보시스템) 개념 설명, 기출문제 해설 및 질의응답		
5회	교재 9과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시스템) 개념 설명, 기출문제 해설 및 질의응답		
6회	교재 10과 (정보시스템 보안) 개념 설명, 기출문제 해설 및 질의응답		
7회	교재 11과 (정보시스템 관리) 개념 설명, 기출문제 해설 및 질의응답		
8회	교재 12과 (정보시스템 개발) 개념 설명, 기출문제 해설 및 질의응답		
튜터링 대표 사진			


교수 학습개발센터
 Center for Teaching & Learning

(그림 4 - 주차별 수업 진행 내용)

튜터링 진행 팁

튜터링 진행에 있어 ‘개념 설명’과 ‘기출문제 풀이’가 너무 광범위한 개념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개념 설명을 진행할 때에는 강좌의 내용이 요약된 PPT를 바탕으로 개념 설명을 진행한다. 이때 PPT를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 개념을 잘 숙지하고 알려주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개념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용어를 빨리 외울 수 있는 방법 등 학습에 도움이 되는 세세한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경영정보시스템 교과목은 교과서에서 모든 내용이 출제되는 대신, 굉장히 세세해서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출제되는 만큼 전 내용을 꼼꼼히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학습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종류별로, 순차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모든 단원의 요소를 하나의 이야기처럼, 맥락이 있는 형태로 정리하면 이해에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비유적 설명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처음

보는 개념이라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예를 들어 ‘조직과 정보시스템’단원에서는 정보 사일로 현상, 전사적 시스템이라는 어려워 보이는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한다. 따로 떼어서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서로 다른 정보 시스템에서 데이터가 고립되어 존재해 마치 외국어 사용자들이 모여 소통을 시도할 때 상호간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것과 유사한 문제인 ‘정보 사일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정보 시스템을 통합하는 ‘전사적 시스템’즉 언어를 통일해 한 종류의 언어로 편안히 소통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두 맥락을 원인과 결과로 연결짓고, ‘외국어’라는 모두에게 이해하기 쉬운 개념을 통해 기억에 남도록 설명하는 것이다.

6. 전사적 정보시스템(IS)을 새롭게 구축함에 있어 주요한 문제점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
- ① 기존 시스템을 정지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일시에 가동하는 방식의 일시형 신속 전환에 대한 **경영진의 비협조가 주요 문제**가 될 수 있다.
 - ② **협업관리를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라 비효율적인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최신 기술 사용에 따른 보안 문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 ③ **기업이 원하는 요구사항과 전사적 IS 소프트웨어 구매 시스템과의 괴리가 있을 수 있고, 과도기 변화 관리 및 신중한 전환 계획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과도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④ CEO 1인 **독주**로 인한 시스템 개발 불균형이 있을 수 있다.
 - ⑤ **자기효능감이 높은 구성원**들은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교육 훈련에 잘 참여하지 않고 저항하기에, 새로운 시스템 사용 독려를 위한 보상/인센티브 지급 등 추가 비용이 투입되는 이슈가 있다.
7.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을 고르시오 ()
- ① 기업들은 역동적 소셜 CRM 프로세스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간 **1,000만달러** 어치를 구입하는 **조용한 고객**의 CLTV(고객평생가치)를 **SM influencer(인플루언서)**보다 **높게** 측정함으로써, **구매력이 높은 조용한 고객**들의 가치와 영향력을 더욱 높일도록 한다.
 - ② **‘6단계의 분리 법칙(six degrees of separation)’은 6단계의 사람들을 거치면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쉽게 연결될 수 있다는 정보전달 및 소셜 네트워크 관련 개념에 대한 법칙이다.**
 - ③ 현재 한국에서 세대를 불문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있는 소셜미디어는 **‘네이버 밴드’**이다. 이는 한국에서 네이버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포털/검색 서비스로 자리매김한 것과 연관된 결과로 볼 수 있다.
 - ④ 마이크로소프트의 **MVP(Most Valuable Professional)** 프로그램 운영 사례는 **‘소셜 CRM’**에 대한 대표적인 성공사례에 해당되는 예이다.
 - ⑤ 소셜 CRM은 동적인 SM(소셜미디어) 기반 프로세스로서, 기존 CRM의 구조화되고 통제된 프로세스에서 벗어나 기업과 고객 관계 모두가 서로 콘텐츠를 생성/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속 변화하는 것을 용인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고객의 **Consumer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게 된다.
8. 소셜미디어 정보시스템(SMIS) 및 소셜미디어(SM)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
- ① ‘소셜미디어 공급업체’란 소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플랫폼 제공 기업을 말한다. 2022년 1월 기준 전세계 1위 소셜미디어 공급업체는 **YouTube(유튜브)**이다. 이는 **숏폼 동영상 공유**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SM 트렌드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 5 - 기출문제 해설)

기출문제를 해설할 때는 샘플에 업로드된 기말고사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해설을 진행한다. 그 날 진행한 단원에 해당하는 문제를 분류하고, 설명 전 튜터는 미리 오답과 정답의 이유를 정리해 둔 것을 바탕으로 설명한다. 이때 오답이 오답인 이유도 명확히 설명해야 학습에 도움이 된다. 각 문제를 설명할 때에는 1번부터 5번의 선지가 등장하는 내용의 개념 PPT 페이지를 언급해서 개념과 함께 보며 튜티들로 하여금 이 부분에서 틀린 이유를 직접 찾아보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다. 내가 사용한 자료에서는 ‘정답이 정답인 이유’를 설명할 때는 노란 형광펜을, ‘오답이 오답인 이유’를 설명할 때는 분홍 형광펜을 치며 설명했다. 보통 오답의 사유로는 ‘반대되는 내용’을 기재해 두거나, ‘다른 분야의 정의나 특징’을 기재해 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유의하는 것이 좋다는 팁 역시 언급했다.

튜터링 진행 소감

매주 2시간씩 튜터링을 진행하고, 개념 이해와 기출문제 풀이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더 쓰고 나면 학업과 더불어 신체적으로 매우 힘이 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을 매우 추천하는 이유는 내가 다른 학생들의 학습에 있어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점이다. 처음 수강했을 때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수업을 먼저 수강했던 입장에서 직접 체득한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정말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튜터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는데, 보통 전공 과목은 시험을 마치고 다음 학기가 되면 학기만큼 내용이 또렷하게 기억나지 않는 좋지 않은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튜터링을 준비하며 나 또한 본 과목을 잘 설명하기 위해 공부를 몇 번이고 더 하게 되고, 이는 다른 과목을 학습할 때에도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비교과 마일리지도 튜터와 튜티에게 모두 지급되고, 튜터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역시 학업을 이어가는데 든든한 지원이 된다. 튜터링 활동을 총정리하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며 튜티들에게 활동 보고서를 제출받을 때 튜티들이 '학습에 큰 도움이 되었다', '세세하게 가르쳐주어 유익했다'라고 소감을 작성해 주었을 때의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튜터 뿐만 아니라 튜터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튜터링, 학교생활을 하며 꼭 경험해보기를 추천한다. 하는 것을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2023학년도 2학기

상명 엑스퍼트 공모전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 2길 20 미래백년관(R) 404호
전화: 02-2287-5427

 SANGMYUNG

상명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